

6 2024 VOL. 336

haninnewsinni@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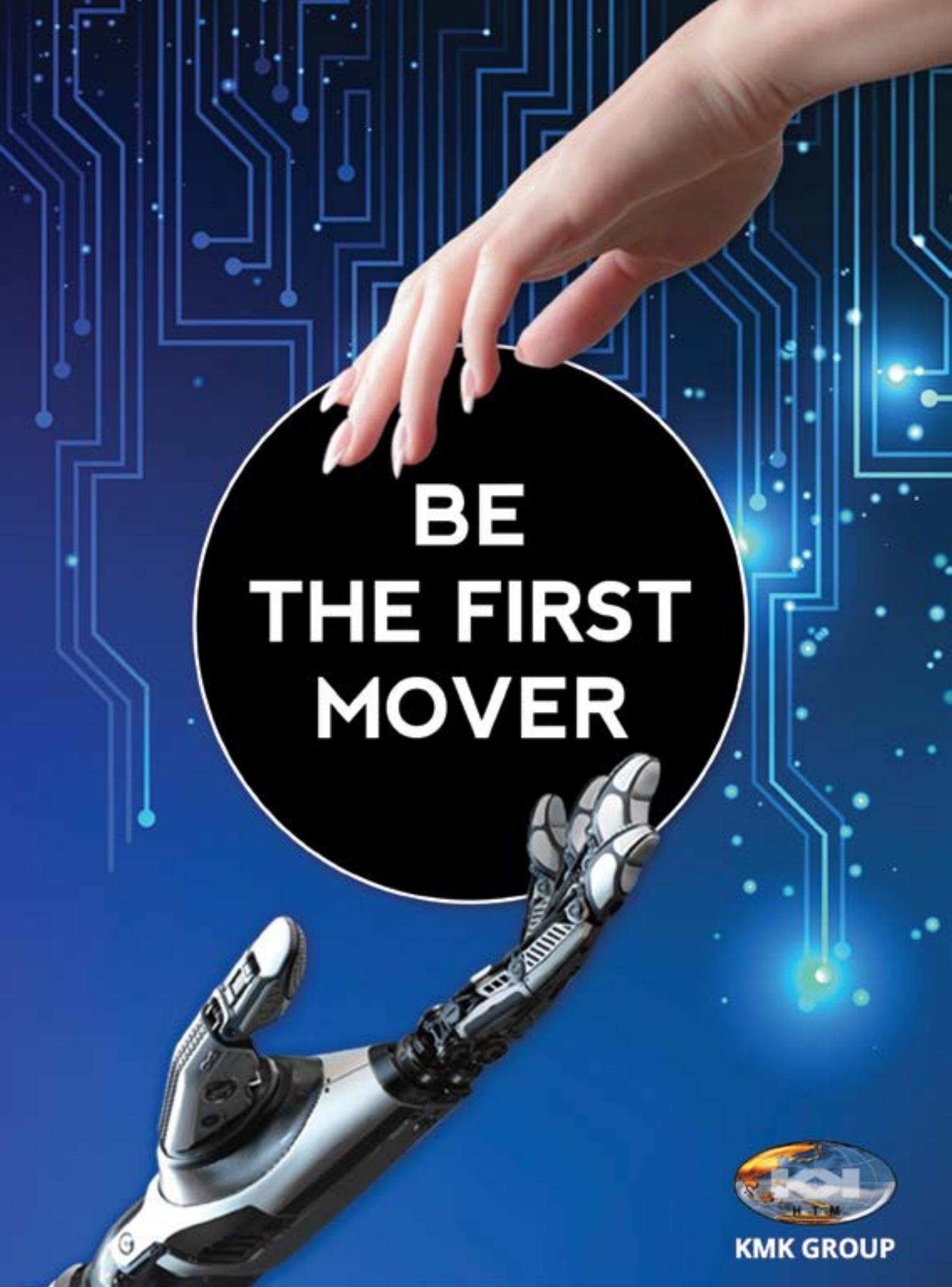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STARGAZER Essential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다.



선수금 최저

24^{Juta*}

월 납입금 최저

2.4^{Juta*}

Essential 트림 판매가

261.4~^{Juta*}

(On the Road 차키본타, MT 모델 기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피아노 블랙 대시보드 디자인 및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엔진 스타트 버튼



4.2인치 TFT LCD 클러스터
(타이어 공기압 정보 시스템 포함)



2열 랩틴 시트

현대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사고시 신차 교환*

(1년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차량가격의 50% 이상 발생 시)



잔존가치 70% 보장*

(구매 후 3년 이내 판매 시)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상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맞츠업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HYUNDAI

월간 한인뉴스 6 2024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오페라 <시집가는날> 마지막
공연 후 출연진과 사진을
찍으려고 포토존에
모인 관객들
2024. 5. 16.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국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왔나?

9

[김재훈의 '세무 TALK']

회계와 세무

10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16

[여기가 맛집]

ORASA'S <황지영>

19

[디카시 풍경]

당신의 정원 <김주명>



contents

2024. 6. 통권 336호

20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0]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4

[인터뷰 2.0] 영 비즈니스 리더 2
Mobility Dotor 'Modoc'
황민성 대표

30

[서상영의 한방칼럼 14]
3대 노인질환

35

[자카르타의 아침]
골프는 자신감이다
〈손상현〉

38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통일 골든벨” 〈최규식〉

40

[행복에세이]
미생의 바둑돌
〈하연수〉

42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봉선화를 닮은 엄마에게
〈김별님〉

45

경영이 예술이다! II
출판기념회

46

[칼럼] 인도네시아 소프트
파워와 '비파코리아'
〈조연숙〉

48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한동훈〉

52

[반려동물 랜선집사]
애교쟁이 포미 〈김주은〉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6 〈신성철〉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4)
인도네시아 헌법(6)
〈이승민〉

58

거장 수나르소의 Wot Batu
〈사공경〉

64

2024 이달의 시사상식

68

생활정보



논설위원 신성철

“한국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왔나?”

대한민국은 1960년대 외환보유고가 1억 달러 남짓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형편없었던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해외직접투자(FDI)를 과감하게 실행했다.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요인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을까?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 자본, 자원, 기술, 경영 등 유무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투자국의 자원과 노동력, 정치적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에는 정치·외교적 요인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 글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크게 작용한 정치·외교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 니켈 등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은 주요 자원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경제 취약성을 갖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체제를 구축해야하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다. 1962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이다. 특히, 합판산업은 1960~1970년대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고 전 세계 합판 수출량 20% 이상 점유했던 우리나라 최대 수출 효자산업이었다. 1960년대 한국은 합판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하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원목 수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자 새로운 공급처를 물색해야 했다. 인도네시아가 낙점됐다.

동서냉전기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동맹 창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1960년 6월 인도네시아측은 우리 친선사절단 방문을 거부했으며, 이어 1962년 3월에 우리 경제사절단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1962년 7월 한국 외무부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1961년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영사관계 수립과 1964년 대사관계를 수립하는 등 외교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 구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63년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정관계 인맥이 있던 최계월 (주)한국남방개발(현 KODECO) 회장의 주선으로 도쿄에서 수카르노 대통령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

1964년 인니여당 간사장 수비안또로수카르노
대통령양녀 사디킨여사 박정희대통령 예방



부장과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1965년 인도네시아 정변(G30S)으로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붕괴되고 친미·반공 노선의 수하르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북한 간의 외교관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개선의 환경이 조성됐다. 1966년 12월 자카르타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설립됐다.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인 1968년 대한민국 최초 해외직접투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면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위대한 첫발을 내딛는다.

1973년 9월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식 수교하면서 한국의 투자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쓰라린 경험을 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건설 및 무역 분야의 진출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 시기에 코린도(KORINDO)를 비롯한 원목개발회사와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건설 부문, 미원인도네시아, 삼성물산 등 종합사가 진출했다.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들과의 교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니 무르다니는 1971년 당시 육군 대령으로 제2대 주한 인도네시아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3년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3년 양국 관계가 대사급을 격상하면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대리대사로 근무했다. 1974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해서는 국방부 정보국장, 통합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요직을 맡았던 베니 장군은 수하르트 정부의 군부 실세로 한국기업을 후원했으며, 현지 한인들과 교분관계가 두터워 한국의 탄약과 전투복 등 방산제품 수입하는데 기여했다. 또 한국의 서부 마두라 유전 개발 참여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양국 군사 및 경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마침내 1981년 코데코에너지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빠르따미니간 체결된 서부 마두라 유전 공동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1981년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듬해 1982년 10월에는 수하르트 대통령

의 답방이 있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한국 방문으로, 양국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5년 이후 대한민국은 자원개발을 뛰어넘어 신발·봉제 등 노동집약산업을 필두로 제조업 부문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한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6년 12월에 양국 외교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정치·경제·방산·문화·인적교류 등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새로운 투자법이 제정되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16개의 MOU가 서명되었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한-인니 포럼’이 개최됐다.

이명박 대통령(2008~2013년)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2004~2014년) 간 관계는 각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1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을 수립해,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을 설치했다. 또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인니 중장기 경제협력비전’에도 합의했다. 특히 유도요노 정부는 한국의 잠수함 3척과 T-50 고등훈련기 16대 구매 및 차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 등 방산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개발도상국부터 현재까지 경공업, 중화학공업에 이어 지식산업으로 다각적인 발전의 성과를 냈다. 이는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외교정책을 통한 각 시대별 산업시대에 필요한 자원을 수급하고 자원보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회계와 세무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필자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다 보면, 적자가 났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느냐는 방문을 자주 받는다. 회계상 적자이더라도 세법에 맞게 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는 항목을 설명하곤 한다.

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정보를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세무는 세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무도 회계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산출하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제 28조 7항, 회계장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익과 비용인식 측면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무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세법은 실제 집행이 되었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어떤 회사가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서 한번에 100억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을 하였다. 충당금 설정전에는 50억 이익이 난 상태였는데 충당금 100억이 들어가다 보니 50억정도가 적자가 난 상황인데, 세무상은 100억은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억 이익이 나는 것으로 조정이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임대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은 10억정도 발생되었다고 할 때 회계상 이익은 90억이지만, 부동산 임대수익은 Final Tax 로 세입자가 10%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90억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더 발생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회계상 100억 수익, 10억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하여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무는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된 회계 자료를 가지고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을 한 후 발생한 이익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라 회계상 적자라도 세무조정 후 이익이 될 수 있다. <끝>

2024년 5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학교 무료급식 정책, 호주 농민에게 큰 기회

호주 낙농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지난 4월 26일 ABC News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난 2월 대선에서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차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자국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간 120조 루피아(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낙농과 축산 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주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우유와 소고기 등의 공급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낙농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업인 ‘데리 오스트레일리아’ (Dairy Australia)의 찰리 맥엘혼은 인도네시아측 기획안을 인용, 인도네시아 학생 8,300만명에게 우유를 공급해야 한다며,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엄청난 숫자이자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측과 우유를 분유로 할 것인지 UHT우유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호주 낙농산업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호주는 인도네시아로 연간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3위 유제품 수출국이다.

호주 육류 및 가축 국제시장 총괄책임자인 앤드류 콕스도 호주 식품과 와인 산업 단체들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콕스는 호주산 쇠고기의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쇠고기 내장의 최대 고객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소의 폐, 혀, 심장 등 특수 부위에 대한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라며 “프라보워 당선자의 주된 의제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호주 제품에 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에 대해 호주 낙농업계가 흥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와 요리의 중심에 쇠고기가 있다”며 “호주는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는 국가이며,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가짐에 따라 호주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2024년 카타르 경제포럼 기간 중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프라보워 당선자는 대통령으로서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 특히 청년층의 기아를 없애기로 결심했다”며 “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국민이 여전히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으며, 내 리더십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에어컨 품귀 현상...무더위와 수입제한 규정이 원인

올해 들어서 자카르타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으나, 최근 발표된 수입 제한규정으로 인해 수입물품 유통에 장애가 발생해 에어컨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난 5월1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올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0%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개월 간 기온이 상승했다. 기상기후지질청(BMKG)에 따르면 2024년 4월 평균기온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4월 평균기온보다 0.8도 높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설치된 에어컨 중 30.8%가 광역 자카르타에 설치됐다.

인도네시아 냉각·냉동산업협회(Perprindo)의 안디 아리프 위자야 사무국장에 따르면, 산업부가 부과한 수입 요건인 기술 승인(Pertek) 발급이 지연되면서 수입이 지체된 것.

안디 사무국장은 최근 산업부 규정 No.6/2024가 시행되면서 Pertek을 받는데 기준 5일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루피아 가치 하락과 냉각기 생산의 중요한 원자재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 비용이 증가한 점도 국내 생산업체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인기가 있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찾는 실패

현상도 에어컨 재고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이다.

협회는 에어컨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적기에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규제 완화 요청이다. 협회는 국내 산업이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입 제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국내 콤프레서 공장 설립 등 생산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에 콤프레서 공장이 부족해서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과 연구 부족이 콤프레서 공장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에어컨 유지관리서비스사업을 하는 아흐맛 조니는 “에어컨을 구하기 어렵다. 재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가격도 5% 가량 오를 것” 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에어컨 기술자 헤리 이스완 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고, 특정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고 말했다.

헤리는 다이킨(Daikin) 같은 인기 브랜드의 경우 배송이 약간 지연되었지만, 다른 브랜드는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팜유, 니켈 등 광산 관련한 하방산업(downstream industry)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모든 국가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무역제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난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2월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당선인은 하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자원의 수출을 제한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며, “국가(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는

“우리는 보호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논리적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보호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자인 블룸버그의 하슬린다 아민이 조코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했다고 질문하자, 프라보워 장관이 이 같이 답했다. 전직 군 장성인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산업화를 가속화하려면 전방산업(다운스트림)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며 “우리가 단순하게 원자재만 생산하면 선진 산업국가가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앞서 대선 기간의 유세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조

코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전방산업 산업 발전과 새 수도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5,000달러로 끌어올려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되려는 인도네시아 노력의 기초가 전방산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2년 4,580달러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광석 수출금지 조치가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니켈 제련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인도네시아인의 복지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정치, 사회>

조코위, 신당 창당할까?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기존 정당에 입성하려면 당규를 변경해야 하는 만큼, 조코위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지 언론 5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이 투쟁민주당(PDIP)과 결별한 가운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온 일부 정당들이 조코위가 자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골카르(Golkar)와 국민수권당(PAN)을 포함한 정당들은 수십 년 동안 당규에 따라 정당을 운영해왔기에 조코위 대통령의 합류가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골카르당의 고위 지도자들은 조코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에르윈 악사 부총재는 현행 당규에 따르면 일정 기간을 집행위원회에 재직해야 총재로 출마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0월 20일 임기가 끝나고, 골카르당 전당대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PAN도 조코위가 합류를 원한다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의 정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서 소속했던 투쟁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아직 어느 정당에 합류할 지 밝히지 않았다. 2014년부터 조코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Projo)를 이끌어온, 부디 아리 스피아디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지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조코위가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다” 라며 “골카르(당)? 예(Yes). 무엇이든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나스탐이나 국민수권당도 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부디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합류할 정당은 민족주의 성향이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프로조와 비슷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스탐당의 수르야 빠로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아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집권연합에 참여해 차기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코위 사위이자 오는 11월 지방선거에서 북부수

마트라 주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끄는 그린드라당(Gerindra)에 합류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2위를 한 그린드라당은 조코위 합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코위가 정치적 지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당지도자(총재)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대형) 정당도 조코위가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것을 원하

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 알아자르 대학의 정치분석가 우장 꼬마 루딘은 조코위가 프로조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LSI의 자야디 하난도 이사는 대형 정당의 경우 내부 인물들끼리 경쟁이 심해서 조코위가 당대표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부산·청주~발리행, 부산~자카르타 노선 신설된다”

부산·청주발 발리행 노선과 부산발 자카르타행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개최된 항공교통심의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산~발리 노선은 에어부산(주4회)에, 청주~발리 노선은 티웨이항공(주3회)에 돌아갔다. 그간 발리와 자카르타행 노선은 인천공항에서만 운행돼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운임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운임도 안정화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 하늘길도 새롭게 마련된다. 진에어가 주 4회, 에어부산이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여객 수요가 많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수권을 확보해오고 있다”며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10대 국립대는?

인도네시아에서 국립 대학교는 국내에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우수한 강사진, 최고의 실험실 및 연구소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립대와 비교해 국립대의 저렴한 등록금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큰 요소로 작용해 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립대의 등록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 이웃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국회의 교육·연구위원회는 나딤 마카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을 불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질의

할 방침이라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는 126개 국립대를 포함한 총 3,300여개의 국공립 및 사립대가 있다. 아래는 학기당 등록금 기준으로 가장 비싼 인도네시아 10대 국립대이다.

1. 인도네시아대학교 (UI)

UI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로 평가받으며 동남아시아 10위, 아시아 49위에 랭크되어 있다. 정규 학부과정의 등록금은 학기당 750만~2,520만 루피아(약 469~1,577달러)이다.

2. 반둥공과대학교 (ITB)

서부자바 주도 반둥에 위치한 ITB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모교로 유명하다. ITB의 정규 학부과정 등록금은 학기당 1,250만 루피아이며, 경영학부는 2,000만 루피아이다. 비정규 입학인 경우, 정규 프로그램의 두 배에 가까운 학기당 2,400만 루피아이다.

3. 가자마다대학교 (UGM)

UGM은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학비의 25%에서 100%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등록금은 학부에 따라 학기당 760만 루피아에서 2,470만 루피아까지 다양하다.

4. 보고르농업대학교 (IPB)

IPB의 등록금은 학기당 1,000만~1,200만 루피아이며, 수의학 프로그램이 가장 비싸다. 비보조금 입학의 경우 등록금은 학기당 최대 1,800만 루피아이다.

5. 빠자자란대학교 (Unpad)

서부자바주에 위치한 Unpad는 자격을 갖춘 학생

들에게 학기당 50만 루피아의 저렴한 등록금을 제공한다. 일반 등록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학기당 최대 2,400만 루피아이다. 예를 들어, 의학부의 학비는 사회과학부보다 훨씬 높다.

6. 브라위자야대학교 (Univ. Brawijaya)

브라위자야대학교는 Unpad와 마찬가지로 학기당 50만 루피아부터 시작하는 등록금을 제공하며, 최고 학비는 학기당 2,450만 루피아이다.

7. 아리르랑가대학교 (Unair)

수라바야에 위치한 Unair는 학생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조등록금이 4종으로 나누어진다. 최저 등록금은 50만 루피아이며 최고 등록금은 학기당 2,500만 루피아이다.

8. 디뽀느고로대학교 (Undip)

중부자바주 스마랑에 위치한 Undip은 50만 루피아에서 2,200만 루피아까지 8종의 등록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9. 스블라스마룻대학교 (UNS)

UNS는 50만 루피아에서 3,000만 루피아까지 8종의 등록금 종류가 있다.

10. 하사누딘대학교 (Unhas)

남부술라웨시주 마까사르에 위치한 Unhas는 특정 조건에서 최대 100%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일반 등록금은 학기당 2,000만 루피아이다. 교육비는 해당 지역의 생활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와 서부자바주 반둥 지역의 생활비는 중부자바주 스마랑과 솔로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10대 국가는... 인니 2위

2023년 4월 발표된 유엔경제사회부(UN DESA,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약 14억2,575

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위로 밀려났다.

세계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이다. 2위는 중국일까? 아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대학교가 많은 국가이다. 물론 이 순위는 대학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양적인 부분만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5월 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로 5,349개 대학교가 있다. 2위는 인도네시아로 3,277개 이어, 3위 미국 3,180개, 중국(2,495개), 브라질(1,264) 순이다. 6위는 멕시코(1,139개) 이어 러시아(1,010개), 일본(992개), 프랑스(629개), 독일(461개), 한편 한국은 401개로 13위를 기록했다.

비파코리아, 국내외 한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과정 성황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운영하는 비파(BIPA. 외국인들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과정)가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비파 롬바(BIPA Lomba)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BIPA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젤다 울란 까르띠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대리와 아말리아 교육관이 축하를 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파견된 아말리아 교육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된 비파 6기 참여자는 932명이었고, 2022년 시작해 6기를 진행했다. 비파 과정의 수강생은 매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파 운영 목적에 대해,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디딤 교육관은 첫째 인도네시아어의 국제화 도모, 둘째 언어를 통한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셋째 양국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비파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거주 수강생들은 줌으로 롬바에

참여했고, 서울과 대구 등에 거주하는 수강생들은 여의도 대사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비파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호응 덕분에 인도네시아 기록박물관이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

비파 롬바는 비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대회로, 인도네시아 시 낭송, 인도네시아 관광지 홍보, 인도네시아 노래 부르기, 인도네시아 전래동화 구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선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부문별로 5명씩 총 20명이 결선에 진출해서 한국 거주자들은 대사관에서 대면으로, 인도네시아 거주자들은 줌으로 결선을 치렀다.



— 여기가 맛집! —

ORASA'S - Batavia PIK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 년의 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지금 초여름의 문턱으로 다가왔는데요. 여기저기 온통 싱싱하고 푸릇푸릇 한 초록으로 질어져 가는 녹음이 한창입니다. 저는 꽃보다도 푸릇한 여름의 잎사귀들, 짹짹한 햇빛, 나무 밑의 그늘의 느낌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런 좋은 날씨를 만끽하며 자전거도 타고 산책하며 지루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자카르타도 우기가 끝나고, 습하지 않은 선선한 바람도 불기 시작하잖아요! 좋은 날씨에는 그 좋은 날씨를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꼭 나가서 산책하고 맛있는 것 드시면서 삶의 여유를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맛집은 자카르타 북부 PIK에 있는 맛집입니다. Batavia 해변에 있는 태국 음식점인데요. PIK은 매립지라 덥고 후덥지근한 편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바람 불고 선선



할 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 년 전만 해도 Batavia 매립 확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 바다와 이어지는 다리(?) 위에 수상으로 지어진 식당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 드릴 식당인 ORASA' S 입니다. 사실 인테리어는 태국 거리의 노점 같은 전통적인 느낌보다는 fancy한 고급 레스토랑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셰프님이 태국 분이시기 때문에 태국 현지의 맛 그대로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메뉴 추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Papaya Salad (60,000 루피아 ++)입니다. 다들 ‘숨땀’ 아시나요? 푸른빛이 도는 그린 파파야로 만드는 태국식 샐러드인데요. 라임의 새콤한 맛, 마늘과 고추의 매콤한 맛, 피시소스의 짭짤한 맛, 팜 슈가의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본격적으로 요리를 즐기시기 전에 입맛을 돋울 애피타이저로 제격인데요. 태국 요리 또한 기름에 볶고 튀긴 요리가 많이 때문에 이런 샐러드 하나 시켜 두셔서 김치처럼 드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요리는 Phad Thai with Prawn (95,000 루피아 ++)입니다. 태국 요리를 맛보면서 팟타이가 빠질 수 없잖아요. 쌀국수를 스크램블 한 계란, 두부, 새우, 부추, 숙주나물 등의 재료들과 함께 피쉬소스, 새콤한 맛인 타마린드 주스, 팜슈가를 넣고 볶아냅니다. 먹기 전에 취향에 따라 땅콩가루, 라임즙, 고춧가루, 설탕 등을 뿌려 먹기도 하는데요. 사실 팟타이는 인도네시아의 ‘케피아오’ 와도 비슷한데요. 팟타이는 태국의 ‘꺄이띠아오 팟’ 이라고 불리는 중국식 볶음면에서 유래했습니다. 태국 고유 요리 라기보다는 토착화된 중국요리로, 세계 2차대전 후에 경제적인 이유로 국민들에게 쌀국수 소비를 장려하고자 했던 태국 왕실에서, ‘꺄어이띠아오 팟’ 에서 중국 식재료라는 이미지를 가진 돼지고기를 빼고 태국 스타일로 피쉬소스, 새우 등을 넣은 새로운 볶음면을 개발한 것이 오늘날의 팟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맛, 짠맛, 단맛, 고소한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팟타이 한 접시 어떠세요? 맥주와도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Moo Ping (105,000루피아 ++)입니다. 태국식 바비큐 돼지고기 꼬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사테’ 와 비슷한 방콕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음식입니다. 태국은 무슬림이 아닌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그 때문에 돼지고기 요리가 발달했는데요. 진한 숯불 향이 가득한 이 돼지고기 꼬치구이는 맥주 안주 그 자체입니다. 양념과 숯불에서 오는 그을린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혹시 저녁을 이미 드신 분들은 여기서 무평 드시면서 가볍게 맥주 한 잔으로 2차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Thord Gratiam Prik Thau (145,000루피아 ++)입니다. 갈릭 소프트셸크랩 볶음입니다. 소프트셸 크랩이란 주로 블루 크랩이 허물을 벗기 전에 어획하여 냉동시킨 것인데 주로 베트남, 태국, 대만 등의 동남아에서 잡을 수 있어 이 또한 태국요리의 빠질 수 없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게살은 맛있고 먹고 싶지만 살만 발라내기 번거로워 꺼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소프트셸크랩은 껍질째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어서 좋습니다. 튀긴 마늘향의 풍미가 가득한 바삭하게 튀긴 소프트셸크랩을 마늘 후레이크와 함께 드셔 보세요.



이 또한 맥주 안주로 최고입니다. 2차 메뉴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Batavia에 가신 김에 근처 'Rumah Jalan Bu Nanik' 이라는 가게에 들러서 인도네시아 전통 스낵들을 구경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땀빼와 새우 칩들이 많습니다. 위생적이고 퀄리티도 괜찮습니다. 이 집의 Pisang Goreng Madu 가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 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애 Pisang Goreng 집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드셔 보세요. 행복은 만들어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한 일상이지만 오늘은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소소한 행복이라도 이끌어내는 6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 정보 : <ORASA'S - Batavia PIK>

음식 종류 : 태국음식

가격대 : Rp 200,000-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10:00

주소 : Batavia PIK Unit 47, Kawasan Pantai Maju,
Jl. Pantai Indah Kapuk, Jkt Utara,
Jakarta 14470

※ Google 참고



당신의 정원

꽃은
상처를 덮어주는 아름다운 언어

폭풍처럼 쓸려가 버린
너의 빈자리
끝내 꽃으로 채우는

당신이라는
꽃말



이미지: 이팝나무, by정래
글: 김주명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무슬림은 썩산트렌의 우스탁(Ustadz -이슬람 선생)들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란다.”

“그렇군요. 나도 언젠가 칼리파가 되려 하는데 무슬림은 벌써부터 칼리파라니 부럽습니다, 고모님.”

무슬림의 이름에 들어간 칼리파란 단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칼리파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으니까요. 훗날 디포네고로는 자바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자신은 술탄이 지배하는 자유국가에서 칼리파로서 자바를 통치할 것임을 네덜란드군의 헨드리크 머르쿠스 드콕 장군에게 천명하는데 뜨갈레쥬 시절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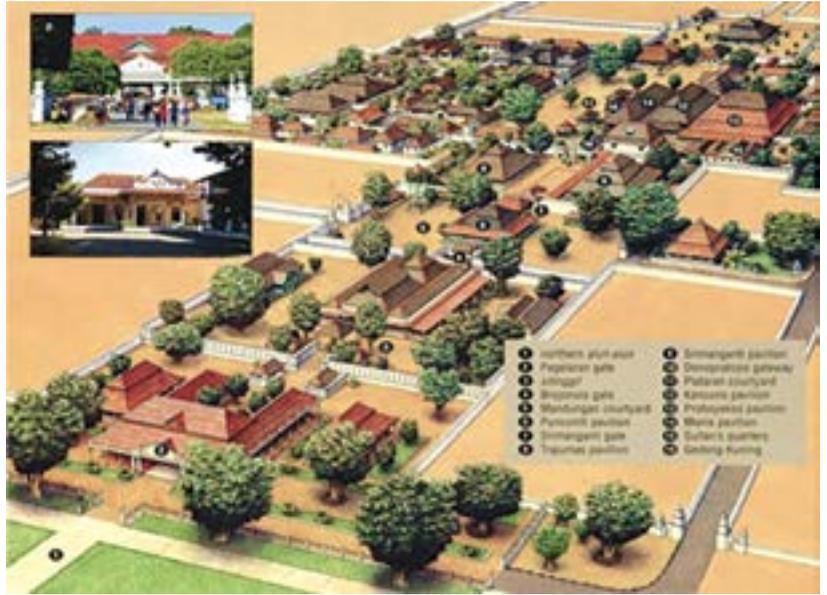
뜨갈레쥬에 머무는 며칠동안 무슬림은 디포네고로의 식솔들 중 이슬람 학자들과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서 어른들을 뛰어넘는, 종교와 신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으므로 디포네고로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모 모자 두 사람의 빠장 가는 길을 배웅하면서도 10여년 후 젊은 이슬람 지도자가 된 무슬림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아직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슬림은 모조(Mojo) 지역의 바더란(Baderan)이라는 곳에서 이슬람을 깊이 연구하면서 신비주의에 심취하여 훗날 끼아이 모조(Kyai Mojo)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디포네고로의 오른팔 끼아이 모조 출처 - <https://tirto.id/pecah-kongsi-pangeran-diponegoro-dan-kyai-mojo-cwyp>

족자 끄라톤 궁전 구조 (출처 - <https://destinasiwisataadomestik.blogspot.com/2016/05/kompleks-keraton-jogjakarta.html>)



한편 하명꾸부위노 4세는 1815년 3월 22일 할례식을 가졌습니다. 할례란 이슬람을 믿는 남자가 성기의 표피 끝을 조금 잘라내는 종교의식입니다. 방식면에서는 본질적으로 포경수술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이슬람에 입교하는 남자들도 꼭 할례의식을 거쳐야 하고 이슬람세계의 소년들은 대개 10세 전후에 이 의식을 갖는데 그것은 술탄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할례를 행하는 장비들은 오늘날에 비해 더욱 무시무시했죠.

“삼촌! 무서워요!”

이제 막 열한 살이 된 술탄이 디포네고로 왕자의 소매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전하, 술탄은 백성들과 만조백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해요.”

“술탄은 예외가 되면 안됩니까?”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집도할 올라마들이 침전으로 들어오자 술탄을 더욱 웅크려 들었습니다.

“전하, 제가 알 바끄로 편 (Surat Al-Baqarah) 을 암송해 드리죠. 알려께서 아픔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제가 암송하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디포네고로는 술탄의 두 눈을 양손으로 가리고 알꾸란(Al Qur'an)의 알 바끄로 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디포네고로 왕자는 알꾸란의 거의 대부분을 아랍어로 외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진행되는 동안 술탄은 디포네고로 왕자 양손의 소매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왕자의 마음속엔 어린 술탄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동생 입누자룻만은 선대 술탄들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되풀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란 다짐을 하며 그는 술탄의 귀에 나지막히 알꾸란의 귀절들을 계속 읊조렸습니다.

그는 술탄의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끄라톤을 찾아와 파타 알 무크 경전(Kitab Fatah Al-Mulk)과 아랍, 시리아의 왕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많은 책들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탄의 어머니 끈쨌노 왕후는 영국에게 밋보인 디포네고로 왕자가 술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왕자, 술탄의 교육은 끄라톤에 맡겨 주시오. 술탄은 왕국을 다스릴 몸인데 뜨갈레조 민가에서 배운 학문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요?”

끈쪼노 왕후는 디포네고로에게도 어머니와 다름 없었으므로 그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로서도 언젠가 술탄이 성인이 되어 섭정이 끝나면 술탄의 어머니로서 권력을 누리려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술탄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후 왕후는 끄라톤의 수로나탄 경비대 부대장 끼아이 아흐맛 응우스만(Kyai Ahmad Ngusman)에게 알꾸란을, 세포이 부대장교 아바스 중위에게는 말레이어 필기법을 술탄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이 마침내 끝나면서 자바섬의 식민정권이 1816년 영국에게서 다시 네덜란드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족자는 이 전환기를 전혀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끄라톤을 이미 두 번씩이나 이민족에게 짓밟혔던 트라우마를 갖게 된 족자의 왕실은 군대가 있었다라도 네덜란드와 대적할 용기를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순식간에 자바땅 전역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빠꾸알람 1세는 술탄이 16세가 되던 1820년까지 여전히 섭정의 자리를 지켰지만 자신의 뒷배경이 되었던 영국이 물러나면서 크게 힘을 잃었고 끈쪼노 왕후와 다누레조 4세 재상이 적극적으로 정사의 결정에 관여하는 형국이 계속되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로서는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는 빠꾸알람 1세가 기염을 토하던 끄라톤에 발디딜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끈쪼노 왕후가 1816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탄 하멩꾸부위노 4세는 이제 부모를 모두 잃은 천애고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끄라톤 한 가운데에서 홀로 고립되어 버린 어린 술탄으로 인해 늘 애가 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멸망하다시피 했다가 간신히 되살아나 동인도로 돌아온 네덜란드는 과거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족자 술탄국을 신속히 다시 손에 넣기 위해 이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끄라톤 왕족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자바땅을 잠시 영국에게 맡겨놓았던 자기 보따리처럼 여기는 네덜란드의 행태가 디포네고로 왕자 눈에 곱게 보였을 리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공을 들여 회유하려 한 사람은 다누레조 4세 재상이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그걸 모를 리 없었지만 영국 강점기 내내 섭정 빠꾸알람 1세를 끈질기게 견제해온 다누레조 4세라면 분명 네덜란드의 유혹도 물리칠 것이라 내심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집요했고 거대한 이권이 걸리자 다누레조 4세가 욕망 앞에 흔들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동인도를 200년 넘게 통치해 온 네덜란드인들은 일천한 경험의 영국인들보다 자바인들의 마음 속을 더욱 깊숙히 들여다보았고 다루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끄라톤의 세력다툼은 이제 네덜란드 등에 올라탄 다누레조 재상에게 급격히 기울어져 갔습니다.

“수마디뿌라공, 요즘 왕국의 영토를 네덜란드 총독부도 아니고 네덜란드인 개인 사업가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게 사실이요?”

뜨갈레조의 저택에까지 들러온 소문에 디포네고로 왕자는 당장 끄라톤으로 달려가 다누레조 재상을 만났습니다. 재상이 눈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에 왕자의 마음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지역일 뿐입니다. 그곳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했고요.”



1830년부터 시작된 동인도의 강제경작시대

출처 - <http://www.muslimdaily.net/artikel/gerakan-perlawanan-sistem-tanam-paksa-di-surakarta.html>

“우리가 저들에게 조차해준 땅은 북쪽 해안으로 충분하고도 넘치지 않소? 어찌 왕국 한복판의 땅을 이민족에게 돈받고 넘겨준단 말이오?”

“네덜란드 지방총독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들 요구를 조금은 들어줘야 나중에 우리도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 대해서만은 그럴 수 없단 말이오! 당장 바로 잡으시오!”

재상 다누레쥬 4세는 분명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재상이 네덜란드 기업들에게 국토를 임대하는 것은 그의 주장과 달리 술탄국 백성들의 고통으로 직접 귀결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커피 같은 기호작물을 동인도에서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재배하는 유럽 사업가들이 아직 없었으므로 대규모 농장을 확보한 사업가들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농민들은 네덜란드 사업가들의 농장 일꾼이 되어 쥐꼬리 만한 급료에 종처럼 매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누레쥬 4세는 예전 다누레쥬 2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형제, 친인척들을 힘있는 자리에 앉히며 점점 더 전횡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는 빠꾸알람 1세가 끄라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디포네고로 왕자의 신의 한 수였지만 1820년 1월 20일 16세가 된 하명꾸부워노 4세가 친정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섭정의 명분이 없어진 빠꾸알람 1세가 빠꾸알라만 봉국으로 돌아가자 이젠 거리낄 것 없이 권력을 과시하며 마구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디포네고로 왕자밖에 없었으니 두 사람이 조만간 크게 충돌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고 그것은 1820년 7월 20일 가르백샤왈(Garebeg Shawal) 행사에서 기어코 벌어졌습니다. 이둘피트리(Idul Fitri)를 기념하는 이슬람력 샤왈월(10월) 1일의 르바란(Lebaran) 축제 행사에서 디포네고로 왕자는 레조위낭운(Rejowinangun)의 땅을 제멋대로 네덜란드에게 임대해준 재상을 만조백관과 운집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무섭게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스타트업으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는 Mobility Doctor 'Modoc' 황민성 대표

인구 2억 7550만 명이 기다리는 무한한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붉은 적도의 땅에서 당당히 자리잡은 젊은 사업가들의 성공 사례가 미래의 CEO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 2.0] 영 비즈니스리더 칼럼을 기획했다.

윌리엄 슈퍼맨. 황민성 이사의 영문이름이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의 이름을 재차 확인한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DC 코믹스가 출판하는 만화와 이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를 성으로 채택한 이유를. 하지만 황민성 이사와 얘기를 나눈 뒤에는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캐릭터를 이름에 넣은 그의 DNA가 '호기 넘치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참고로 탄생 80년 동안 여러 해석을 거친 슈퍼맨이 '정의'와 '희망'을 상징한다.

1980년에 설립한 Sumber Bangunan Private Limited는 Sinarmas Land, Astra International, PLN, Indomaret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철강 수주에 성공하며 현재 1,000개가 넘는 중소 유통업자에게 SNI 철강 제품을 유통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 증가를 위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 철강제품은 60종류에서 90종류로 늘었다. 황민성 이사는 새로운 제품 수입을 하기 전에는 자카르타 주변의 위성도시 시장을 철저히 조사해 수익성을 분석한다. 자바섬 외부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다양한 물류기업과 작업 조율도 꼼꼼히 챙긴다. 2023년부터는 고객이 겪는 이동 수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전문가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Modoc 스타트업을 대표로 된다. 스타트업으로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는 황민성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황민성 이사님, 먼저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리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1991년생으로 현재 33세입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보냈고(17년 이상) 이전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서울 등 여러 나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에 아버지께서 가족 사업인 철강 유통 회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셔서 자카르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은 당시 시나르 아시아라는 회사 이름으로 저의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카르노 대통령 시대에 외가 쪽 할아버지는 자카르타에서 유일한 두 철강 유통업체 중 하나를 운영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호텔, 인도네시아 최초의 백화점, 사리나 플라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모스크인 마스지드 이스티클랄과 같은 많은 국가 프로젝트에 철강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업은 큰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뒤, 저희 부모님은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또 다른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할아버지의 자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사업은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자재도 판매하는 작은 가게에 불과했습니다. 회사가 차츰 커지면서 PT Sumber Bangunan은 철강 유통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른 철강 유통업체 및 철강 공장과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Q. 철강업계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 주목하고 있는데요. Sumber Bangunan Private Limited도 사무실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스리 몰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 내외로 여전히 아세안과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철강과 목재 등 필수재에 대한 수요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2개의 주요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강 쇼룸이 될 3번째 창고를 건설하는 중입니다. 40년 동안 우리 사업은 건축 프로젝트와 소규모 건설 매장에 철강 도매 공급품을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매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Sinarmas Land, Astra International, PLN, Indomaret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철강 수주에 성공하셨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철강 유통 회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이 소유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개발한 사업으로 다른 자재 가게에도 철강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할텐데요, 저는 이 생각에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장기적으로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쌓더라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한다 해도 무의미해집니다.



Q. Sumber Bangunan Private Limited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40년 이상 사업이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명성과 공급업체와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과 고객에 대한 오랜 노력으로 쌓은 명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재무적 현금 흐름을 발전시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도 현금으로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 사무실을 신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 비해 성장이 느리지만, 경제 위기 동안에 수반되는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프로필을 살펴봤는데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를 자유롭게 구사 가능하시네요. 언어 쪽에 특히 재능이 뛰어나시네요?

하하, 감사합니다. 언어를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배운 것에 대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한 번 시작하면 그만두지 않는 성격도 도움이 되네요. 언어에 재능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모두 언어를 배우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세계의 또 다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국어와 같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저에게 면접 같은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공부했을 당시, 매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주말에도 5시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문법은 저의 모국어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공부를 통해서든, 현지 한국인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든 계속 노력해 제 자신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Q. PT Mobility Doctor Indonesia의 CEO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과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PT MOBILITY DOCTOR INDONESIA의 CEO가 되겠다고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었고, 2년 정도 됐습니다. 회사 자체가 자동차 미디어 플랫폼이고, MODOC도 자동차 판매 및 구매를 하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진행 중입니다.

이전 CEO는 한국인이었고, 저는 CEO와 현지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몇 년 동안 스타트업 회사에서의 경험이 있었고, 자동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이사회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현재 모독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를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눈에 띄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우선 외부 투자 없이도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전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스타트업은 캐피탈로부터든 높은 운영비로든 초기 단계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로 IT 부문에서 운영되는 스타트업은 서버 비용과 IT 개발자를 포함한 고임금 인력 등 숨겨진 유지 보수 비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수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기 위해 회사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우리 회사가 Pondok Indah 지역에 첫 번째 자동차 워크샵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지역 자체에는 사내 자동차 수리, 세차, 디테일링, 충전소, 카페 및 한식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는 동시에 우리가 제공하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올인원 스톱 서비스입니다. IT 회사는 보통 손익분기점까지 가는 데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회사의 자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수익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면 첫 번째 외부 투자처를 찾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많지만, 기밀 유지 때문에 미래 전략을 충분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웃음)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는 항상 자신의 자동차가 자산이라기보다는 부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Modoc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대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꿈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어떻게요? 궁금하시다면 계속 우리를 지켜봐주세요!

Q. 한국 기업이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전에 한국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한 적이 있고, 지금은 자카르타에서 한국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모든 한국 기업들도 더욱더 ‘현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인도네시아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소비 습관, 패턴, 구매력, 지불 방법 및 수천 가지 이상의 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 논문을 읽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적절한 현지 인재를 찾아서 관리직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기업들이 관리직에 현지인이 전혀 없고, 현지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침투할 때 잘못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사업을 함에 있어 항상 강한 면과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본비의 저렴한 부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에 있어 유연성이 더 깊어져 협상의 여지가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열린 자세로 환영함으로써, 이곳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얽히고 설켜 ‘관료제’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격증을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길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강한 면과 약한 면은 체쳐두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막대한 양과 다양하고 중요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합니다.



Q. 황민성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MODOC이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아직 초기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수익, 사용자 수 등과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투자 마일스톤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을 정의합니다. 저는 적어도 다음 펀딩 라운드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회사를 성장시키기를 희망합니다. MODOC이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분야의 환경에 기여하고 가치를 더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깐요.

장기적으로는 가족의 사업을 키우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항상 현지화와 다운스트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중자를 원료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출하기 전에 이곳에서 가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업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Q.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시려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나 불안을 다스리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오토파일럿 아래에서 과거의 행동이나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 일을 결정하는 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한 부분이고,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과 관련된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내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 저는 평소에 독서와 명상을 하고, 공원을 걸으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명상이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Q. 스타트업 창업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 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아직 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역경과 고난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외국에서 살았을 때의 기업 경험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일할 때는 심지어 동남아시아 사람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고 심지어 무시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저 자신을 더 밀어붙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로 삼았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이후로 저는 인생에서 겪은 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고, 제게 다른 인생의 관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언젠가 제가 대표가 된다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이고 사업적인 면입니다. 저는 겸손한 법을 배우는 것,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나 선배,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로 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잘 관찰하면, 여러분은 항상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새로운 통찰력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할 때, 기꺼이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이 작은 정보가 결국 여러분의 전략적인 비즈니스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로 이어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인뉴스 독자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삶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삶에서 불확실성이나 손실을 느낄 때마다, 저는 항상 동전의 반대쪽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입는다면,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삶에서 실제로 잃는 것은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각각의 손실에서 저는 항상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인뉴스와 인터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를 만나게 된다면 언제든지 인사해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진행: 이영미 편집위원)



한방

韓方

지난 호에 이어

3대 노인 질환

1. 치매
2. 파킨슨
3. 심혈관질환(심장병, 중풍)-생략
4. 고독사, 호흡기질환(부록)

1. 치매

현재는 2056년이다.

내 나이 72세, 지금의 정년퇴직 나이는 80세이다. 몇 십 년 전과 비교하여 의료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냈다. 하지만 아직 노화를 멈추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다.

몇 달 전부터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로 가야할지 깜박하고, 잠깐 동안 지인들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었다. 사실 치매 초기 증상일 거란 생각을 해 보았는데,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10년 전 개발된 레이저와 약물 치료로 치매는 90프로 이상 정복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병원 진료를 보기위해 집을 나섰다. 목적지만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행하기 때문에 목적지만 알려주면 된다. 다행이 오늘은 목적지가 바로 생각난다. 혹시나 해서 미루던 검진을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 나이 42살이었고 치매에 걸린 아버님이 계셨다

승윤: 아버지 오늘도 반찬을 많이 남기셨네요.

아버지: 누구시더라?

승윤: 아버지 저 승윤이에요.

아버지: 승윤이는 5년 전에 죽었어.

승윤: 아버지 아들 승윤이라고요.

아버지는 종종 치매로 3년 동안 병상에 누워계셨다. 간병인이 있어 하루 6시간 돌봐주지만 증세는 나날이 악화되었다. 그나마 시에서 지원하는 돌봄이 센터가 있어 2시간을 지원받아 총 8시간은 외부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아주머니: 칫솔질 하는데 치약을 계속 드시려고 해서 뺏았더니 내 등짝을 때리지 뭐야!

승윤: 죄송합니다 아버님 상태가 나날이 악화되어 저도 걱정입니다.

아주머니: 이러시다가 별 것도 아닌 일에 크게 노하셔서 변이라도 당할까봐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승윤: 며칠 후 의사선생님께서 방문하시면 새로운 처방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너무 염려 마시고 수고 좀 해주세요.

의사: 현재로써는 이 약물이 최선입니다. 아쉽지만 저로서도 특별한 방도가 없습니다.

승윤: 그럼 저희 아버지의 향후 상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사: 아시다시피 치매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처음 내원하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드물게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흔치는 않아서요.

이 약물은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오늘 새로 드린 이 약물은 아버님의 감정조절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승윤: 혹시 학회에 새로 보고된 치료방법이나 치료약물은 없나요?

의사: 좋은 소식 있으면 맨 처음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신 얘기를 아내가 듣고는, 일찍이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경제적 압박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주위에 있는 치매환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몇몇 지인들은 형제들과 상의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올인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만큼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내 일처럼 돌보는 사람을 구하기는 더 어려웠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감. 매달 간병인을 포함해 기본적인 치료와 생활을 위해 들어가는 지출이 웬만한 기업의 월급과 맞먹었다.

현재

병원에 도착하여 대기표를 받고 기다렸다. 잠시 후 안내 로봇의 안내에 따라 검사표를 작성하고 검사실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마쳤다. 이제 의사와 면담을 하고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방만 받으면 진료가 끝난다. 의사와 면담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내 이름이 호명되고 나는 진료실 안으로 향했다.

간단히 상담을 마친 뒤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검사결과는 긍정적이었고, 지금 당장은 레이저 치료가 필요 없으니, 약물복용만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소견을 받았다. 약효는 며칠 이내에 서서히 나타날 거라는 안내를 받았다.

예전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법한 질병이지만,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 되어버려서, 치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5년 전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아내를 생각하면 멍멍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다. 그 때부터였을 것이다. 바깥 활동도 줄어들고 사람들과 교류도 조금 불편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외식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다녔지만 내 기분은 그저 그랬다. 이상하게 생각한 첫째가 의사와의 상담을 권유했고, 뒤늦게 내가 우울증을 앓

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는 슬하에 3명의 자식이 있는데 둘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둘째는 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진료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손주녀석은 소파에 앉아 게임이 한창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손주녀석이 다가와 “할아버지, 엄마가 과일 드시러 오시래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알았다고 말해놓고 계속 신문을 읽었다. 잠시 후 방금 손주가 무슨 말을 하고 갔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얼마가 지났을까, 손주가 다시 와서 “거실에 과일 드시러 오시라고요!”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짜증이 난 듯 통명스럽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마음 한편에 씩씩함이 몰려왔다. 예전에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으리라...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올랐다.

나는 물리학 교수이고 아직 강단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강연 중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약도 복용하고 있으니 더 안심이 되었다. 수업을 마치고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사물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교수님?

잠시 후 진정이 되자 학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가 뭘 하고 있었고,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또 정신을 잃었구나” 라는 직감이 들었다. 학생을 물끄러미 보다가 강의가 끝났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했다.

25년 전

치매가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밖으로 뛰쳐나가 길을 헤맨다거나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져 화를 내거나 폭행을 한다 등등이다.

인지능력 또한 떨어져 사물들의 바른 사용법을 몰라 옆에서 계속 도와주어야만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육체는 어른이지만,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아버지는 김을 좋아하신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반찬이 올라왔고, 따뜻한 밥에 김을 싸서 아~ 하고 드렸다. 이상하게 오늘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받아 드시질 않는다. 차근차근 애기도 해보고 꼬셔도 보고 억지로 먹여보려고 별별 짓을 다했지만, 결국 반찬은 하나도 안 드시고 밥만 드시고 식사를 마치셨다.

일은 거실에서 터졌다. 약 드실 시간이라 약을 챙겨 물과 함께 드렸다. 평소 같으면 약을 받아들고 복용하셨을텐데, 오늘은 티비만 계속 보신다.

몇 번을 불러도 묵묵부답이시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언성을 높였다.

아버지도 그에 반응하셔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신다. 분이 덜 풀리셨는지 옆에 있던 리모컨을 던지려고 하시는 것을, 겨우 진정을 시켜 침대로 모셨다. 사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건 하루에 한두 번은 있는 일이다. 기저귀를 갈 때, 약 복용할 때, 샤워할 때 등등

가끔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보며 중얼거린다. 왜 세상에 이런 병이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여기서 이러고 있나. 바깥세상은 급변해 가는데 내 시계만 멈춘 것 같았다. 사실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버지 의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또한 이 고통을 인정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끼셨을까... 끝내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 할 수밖에 없어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하지만 내 감정은 간병하는 것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된 시간으로 느껴진다. 옛말 틀린 것이

없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키워내지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보살피지 못한다” “읽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을 되뇌고 되뇌이며 마음을 바로 잡았지만... 문득문득 아버지께 너무 많은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그래서 인지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을 보는 것 같다. 나 또한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간병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고 있는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내 마음을 아는지 점점 더 기울어져간다.

현재

약물복용 1달째

가끔 경미한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는 것 빼고는 특이한 증상은 없었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하고 이약도 완전한 약은 아니다. 장기간 복용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신장에 좋다는 식단을 준비하고, 감사기도 하며 식사를 한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된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행운아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치료제가 있었다면 좋았으련만...

그때 좀 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 할 것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120세 이다. 나도 정년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다. 남은여생은 책을 집필하며 지내려고 한다.

첫 작품 책 제목도 정했다 책 제목은 “후회하지 않는 삶”

치매는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기능(기억력, 언어표현능력, 판단력 등)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을 뜻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로 매년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초당 한명씩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젊은 사람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보다 집에만 계신 분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퇴행성(노화성)뇌질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습니다. 또한 뇌경색과 뇌출혈, 알콜중독, 약물중독, 우울증, 파킨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만 등 다양한 원인이 치매를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증상

연세가 65세 이상인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시 검사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증후가 나타나면 망설임 없이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기억력 저하-몇월 몇일, 물건을 찾지 못함, 같은 질문을 반복, 약속을 잊어버림 등
2. 언어, 계산능력 저하
3. 시공간 능력 저하-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를 찾지 못하거나, 익숙한 길을 헤맴
4. 성격과 행동변화- 예전과 다른 공격성이나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
5. 일상생활 능력 변화-것가락질이나 글씨 쓰기 등의 도구 활용 능력이 저하되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거나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는 등

조기발견으로 골든타임을 쟁취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치매를 늦추고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팁!

치매의 조짐이 있거나 치매진단을 받으신 부모님들에게 잔소리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화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상호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 눈에는 아직도 자식은 자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부모노릇하려고 하는 유사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와 소통하실 때는 칭찬과 격려,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초기치매를 극복 할 수 있는 꿀팁!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난 이제 쓸모 없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뇌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뇌를 수축시킴).

나이가 들수록 말동무가 필요하고 취미활동이 필

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치매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뇌를 사용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거나” “일에 매몰되어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게임이나 율동, 창작활동 등을 통해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여러 뇌 기관들을 사용하여 뇌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고 율동하기, 운동하기, 게임하기, 취미 생활 즐기기, 칭찬하기 등 가족과 지인 친구들, 주변인들과 함께 활동하면 뇌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중증치매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간” 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의식의 세계가 가려지고 무의식대로 마음가는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속사정이 있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고충이 있었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고찰해 보신다면 이 병을 더욱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운동관리, 식단관리, 심리관리 등 자신의 생활패턴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 제 2의 흥이 나는 인생을 찾아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 하시길 바랍니다.

韓方





골프는 자신감의 게임이다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골프를 시작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해외 생활은 골프를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골프를 시작하려면 시간, 비용, 노력에 대한 투자가 모두 필요한데 주재원으로 해외 생활을 하면 시간과 비용면에서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COVID-19 시기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를 시작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인도네시아에서도 COVID-19 시기에 빠른 속도로 골프 인구가 증가했는데, 특히 20~30대 젊은 층과 여성 골퍼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남부 자카르타 꼬망에서 비교적 가까운 골프 연습장은 퇴근시간 무렵이면 평균 1~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골프공 100개의 가격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가량 상승했다. 자카르타 북쪽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드라이빙 레인지가 여러 곳에 오픈을 했는데 항상 손님들이 붐빈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인 누구나 골프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TOP Golf가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공사 중이라고 한다.

비록 골프장의 그린피와 캐디 팁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자카르타는 골프를 즐기기에 점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 기관, 단체에서는 공식 모임과 함께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 푸짐한 상품이 걸린 럭키 드로우 행사는 참여를 독려한다.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골프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들이 있으며, 개인 회사들 역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골프 라운드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생활에서도 골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등산, 자전거,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횟수를 보면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평일 오전에 잠시 짬을 내어 지인들과 골프 라운드를 즐기는 학부모님들의 자카르타 라이프는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볼 때, 자카르타에서 골프가 가지는 가장 큰 긍정적인 면은 ‘부부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골프는 부부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라운드를 하는 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라운드를 마친 후 골프장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후배로부터 들었다. 또한, 가족이 모여 골프를 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가족과 함께 골프를 즐기는 것은 일반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듯 자카르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골프 취미를 비즈니스나 가족과 개인의 여가생활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모든 사람에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글이 자카르타에서 골프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첫 번째 골퍼는 레슨 프로에게 배우자.

골프를 칠수록 레슨의 중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다.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골프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과감하게 레슨 비용에 투자하여 1~3개월 정도 열심히 배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레슨 기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연습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익힌 스윙폼이 그 사람 평생의 스윙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멋지고, 예쁜 스윙폼을 가지고 싶다면, 반드시 레슨 프로에게 골프를 제대로 배우자.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레슨 프로도

많이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현지인 레슨 프로에게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두 번째는 골프 연습은 꾸준히 해야 한다.

골프 스윙을 처음 배울 때는 스윙 동작이 어렵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윙 동작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레슨 기간 동안 이러한 습관을 익히는 것이 좋다.

자동타석보다 골프공을 구입해서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연습장을 추천한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뿐만 아니라 연습 방법 측면에서도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샷을 할 때마다 셋업을 다시 해보자. 골프 라운드를 나가서 동반자들이 멀리건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같은 위치에서 공을 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다.

처음에는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시작하지만, 모든 클럽을 사용할 시기가 되면 어프로치, 아이언, 유틸리티/우드, 드라이버 순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워밍업을 시작하여 점점 큰 아크와 빠른 헤드 스피드의 스윙으로 전환해야 스윙의 일관성을 만들 수 있고,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골프장에 있는 드라이빙 레인지와 벙커에서 실전 연습을 해보자. 연습장의 매트와 골프장의 천연잔디는 매우 다른 느낌을 준다.

평소에 조금 빠르고 큰 걸음으로 걷는 운동은 골프 스윙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리듬감이 좋아질 수 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골프 클럽이 더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골프 클럽은 중고 제품을 추천한다.

한국에는 골프 인구의 증가로 중고 제품이 거래

가 활발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되기 때문에 골프 클럽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에 반해 인도네시아는 중고 제품 거래가 많지 않고, 소수의 회사들이 골프 용품 수입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유통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골프 하우스, 라자 골프 등 골프 숍의 할인 행사를 기다렸다가 구매하거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 중고 제품을 주로 구입해서 사용하길 권한다.

드라이버, 우드의 경우 5년, 아이언의 경우 10년 정도 사용해도 보관상의 문제만 없었다면 새 제품과 특별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다. 다만 중고 클럽을 구입할 때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무게와 강도가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 또는 직장 상사, 지인들로부터 골프 클럽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골프 클럽에 자신의 몸을 맞추기보다 피팅을 통해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몸에 맞지 않는 스펙의 클럽을 사용하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도 제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에 Flex-L 또는 Flex-R 샤프트를, 남성은 드라이버에

Flex-SR 또는 S, 아이언에는 90~105g대의 Flex-R 샤프트를 사용한다. 신체 조건이 평균 이상이거나 힘이 센 경우에는 더 강하고 무거운 샤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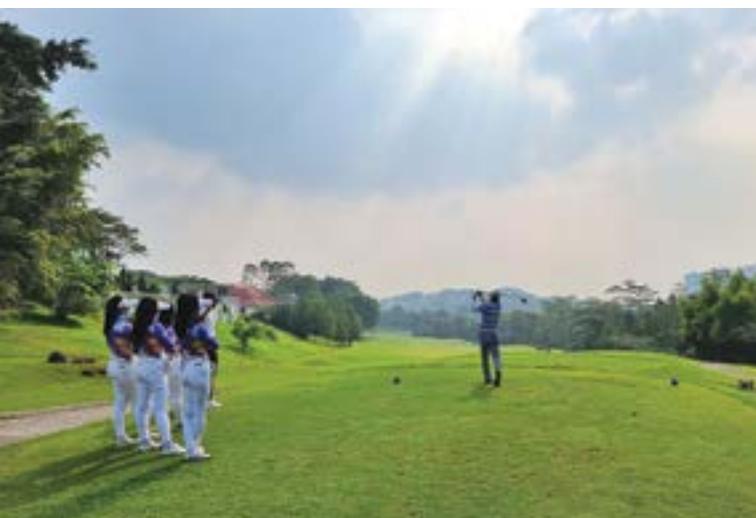
골프 의류와 신발 등은 인도네시아의 강한 자외선과 높은 습도로 인해 몇 년간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골프 용품점에서 30~70% 이상 할인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약 1년간 사용한 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어느 날 타임머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시작된 자카르타의 일상에 비하면 골프를 시작하는 것은 일상의 작지만 즐거운 도전이 될 것이다. 골프를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더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골프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인정하고 더 많은 연습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수를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자신감 있는 샷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골프는 자신감의 게임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 개인적으로 자카르타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골프 관련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골프 모임에 참여하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주재원 가족들에게 골프 레슨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에 대한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했다. 특히 대학 선배님의 주선으로 참여하게 된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난 분들과의 골프를 통한 삶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그리고 현재는 그때 만난 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우연히 한인뉴스에 글을 연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개해준 친구와 글을 받아 주신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도전, 골든벨을 올려라! “통일 골든벨”

최규식(학생기자 JIKS, 12학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세 명 중 두 명은 알 법한 통일 골든벨은 그만큼 인도네시아에서 깊이 자리잡은 행사 중 하나이다. 이 행사는 인도네시아 전역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중고등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하여 즐길 수 있는 열린 행사이다. 미리 사전 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가 시작된 날 110명(대기자 10명)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이 행사의 인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통일 골든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회장 이세호)가 주최하고 주인니 대한민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와 코참의 후원으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도전! 적도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로 가득찬 “통일 골든벨”의 현장에 다녀왔다.

이른 아침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 대강당에 들어선 순간 손에 든 문제지를 보며 공부하는

학생, 삼삼오오 모여 서로 문제를 내주고 맞추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약간의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였다. 꿀맛 같은 주말의 휴식을 뒤로 하고 하나, 둘 모여드는 학생들에게 나는 작은 소리로 화이팅을 외쳐 주었다. 드디어 100여명의 학생들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고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여러 귀빈들의 축사가 이어지며 대망의 막이 열렸다.

상기된 참가자들의 표정에 나도 덩달아 흥분된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보았다. OX퀴즈,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등 난이도에 따라 퀴즈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재미있게 퀴즈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자의 센스도 돋보였다. 처음에는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답을 적는 학생들이 보이며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뽐냈지만 곧이어 오답자가 속출하며 빈자리가 늘어갔다. 탈락하는 학생들의 수줍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안타까움에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끝내 골든벨의 문턱에 닿지 못하고 뒤돌아 나오는 학생들에게 참가자와 학부모님들, 봉사자들은 격려의 박수를 잊지 않고 보내

주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기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보는 나에게 그 감동은 고스란히 밀물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이 대회 꽃이라 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이 시작되었다. 탈락자들에게 희망을! 다시 기회가 주어진 학생들은 그 어떤 시험때보다도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로 재도전의 기회를 얻어냈다. 참가자들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같은 또래의 입장에서 보아도 너무나 멋져보였다.

이어진 축하공연으로 LeeJ Crew의 댄스는 아이들을 연상케하는 칼같은 군무를 보여줬다. 어느새 장내에는 긴장감과 중압감은 사라지고 함성으로 가득차고 기꺼이 일어나서 두 팔을 흔들며 환호하는 열성팬도 보였다. 공연을 끝으로 한껏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골든벨을 울리게 된 주인공, 대상은 노연우(JIKS 11) 학생이 거머쥐었고 상장과 500만 루피아의 장학금을 받는 영광은 물론, 모국 방문 한류체험 및 전세계 통일 골든벨 참가자격 및 참가비를 지원받게 된다.(2024년 7월 중 개최 예정). 최우수상은 조은빈, 이가는 학생으로 상장과 300만 루피아의 장학금, 우수상은 김연제, 손예빈, 정가온 학생으로 상장과 200만 루피아의 장학금, 장려상은 임태현, 조은수, 안지우 학생으로 상장과 100만 루피아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참가한 모든 학생들을 위해 바람막이와 떡볶이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참가자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참가자 임OO(JIKS 11) 학생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혜를 나누고 교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대회가 참가자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길 바란다.”

참가자 정가온 학생 (JIKS 9)은 “수상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참가자 모두가 화합하고 즐기는 시간이었다. 내년에는 친한 친구들과 같이 신청하여 이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하고 싶다.” 고 전했다. 몇몇의 참가자의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참가자들 간의 단합과 오락적 요인이 가미되어 교육 효과와 즐거움을 모두 다 잡을 수 있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더해지는 통일 골든벨이 아닌가 싶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 방안에 관한 문제,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에 관한 문제 등을 보며 괜히 나도 모르는 애국심이 샘솟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와 같이 이 곳, 인도네시아에서 살고있는 청소년들과 어우러져 통일 골든벨 문제를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열정을 다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신 주최측 외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글로나마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이세호 회장과 대상 노연우(JIKS 11) 학생

미생의 바둑돌



하연수(한국문협 인니지부 감사)

맑은 하늘에 바람이 비를 배달하고 갔다. 여우 시집가는 날이다.

오전 일 마친 정원사가 비상계단에서 떠났다. 어찌 슬픈 듯하면서도 슬프지 않고, 어두운 듯하면서도 어둡지는 않은 묘한 분위기다. 마을 지도자 우스닷이 말했다. 오래전 꽃길 열쇠를 받은 정원사에게 떠날 시간이 어떻고, 떠날 공간은 어떠한 의미가 없다고 한다. 꿀은 없어도 향기가 있는 꽃이 되고 싶었던 정원사가 떠났다.

정원사는 자신을 꽃나무 의사라고 했고, 아파트 뒤편에 유리 온실을 꽃나무 병원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의 과거를 알 수 없었다. 그저 꽃나무 의사라고 했다. 그렇다고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근무도, 퇴근도 유리 온실에서 했지만, 점심 후 휴식은 꼭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했다. 무슨 말이든 들어 주는 계단과 벽이 있어 그랬을 것이라고 마을 지도자 우스닷이 말한다. 그래 그 계단에는 비상시가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휴식 시간을 누구의 방해 없이 혼자 즐길 수 있는 곳이었고, 떠나던 날도 벽과 계단에 기대 꽃길로 들었다.

가끔 우리 집 베란다 꽃나무들 손질해 달라고 정원사를 불렀다. 우리 식구들과 보다 베란다 꽃나무들과 이야기가 더 많았다. 그곳에 서면 그는 의사가 되어 꽃과 나무들과 긴 상담을 이어 간다. 베란다 귀퉁이 야윈 파파야 나무가 힘들어한단다. 올망졸망 달고 있는 열매들이 귀여워도 너무 많아 허리가 휘단다. 자주색 호접란에는 자주색이 전보다 더 열어졌다고 희망을 주고, 자주색이 열어질수록 심장 속에 꺾꽂이 가두어 온 명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제 자주색이 열어지는 만큼 행복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뭘 수다를 그렇게 떠느냐는 내 표정에 답을 준다. 자신에게 수다는 삶의 향기라고 했다. 자신은 꿀은 없어도 향기가 있는 나무 의사로 살다 가고 싶다고 했다.

내 집에는 요크셔테리어 강아지 발바리와 고양이 냥이가 있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날 서울에서 자카르타로 왔다. 정원사가 오면 고양이 냥이는 어느새 문 앞으로 달려오고, 냥이와 권투도 하고, 공놀이도 하며 놀아 준다. 그렇게 노는 모습이 우리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원사 스스로가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정원사와 요크셔테리어 강아지 발바리는 서로 멀리 물러서며 경계를 하는 사이였다. 발바리가 자연 수명을 다하고 떠났다. 정원사는 발바리에게 옷을 입히고 입관해서 유리 온실 뒤에 묻어주었다.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발바리에게 이슬람식 기도까지 올려 주었다.

얼마 후 냥이도 떠났고, 정원사는 꽃길로 가게 될 것이니 두려워 말라며 옷을 입혀주었다. 정원사는 냥이를 친구였던 발바리 옆에 묻어주었다. 의지와 달리 천만리 이역 땅에 와서 살다 문히게 된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해 주었다. 내 눈길이 멀리 신사동 언덕 위 아파트에 가 있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미안하다.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싫다. 이 말로 전제로 많은 양해를 구하려 했고, 많은 불평들을 잠재우려 했다. 싸우고 그리워했던 두 친구가 유리 온실 근처에 나란히 잠들게 되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내가 새벽 달리기 출발하는 장소였고, 정원사가 출근 전 세차일 부업하는 장소였다. 달리다 보면 ‘좋은 아침’ 소리가 들려 온다. 화답 인사를 하고 난 후에야 달리기 속도를 낸다. 어느 날 ‘좋은 아침’ 인사가 좋은 평상시보다 더 크게 들려왔다. 돌아보니 정원사가 물통을 들고 통로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뒤로 사십 대 초반 여인이 걸레를 든 채 따라오고 있었다. 정원사가 미소 지으며 뒤에 서 있는 여인을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했고, 그날부터 자기를 도와주기로 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일손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두 배의 수입을 올리겠다고 엄지 두 개를 올리고 흔들었다. 정원사도 즐거운 듯 싱글벙글했다. 내일 베란다 꽃나무 정리 부탁하고 다시 달렸다.

퇴근길, 마른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 정원사는 떠났다. 마을 지도자 우스갯소리를 말했다. 정원사는 이 세상 끝에 꽃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오래전에 꽃길을 들어설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사람이었고, 떠나고 싶을 때 꽃길 따라 떠났다고 한다. 그는 위대한 마지막을 보여주고 떠난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생의 바둑돌들이다.

봉선화를 담은 엄마에게



『엄마에게』
서진선 글/그림, 보림, 2014

어릴 적 아무 의미도 모른 채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983년 6월 말부터 11월까지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1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주제가였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만으로도 세계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화제였다. 방송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유명세와 달리, 출연자들이 흘린 한 맺힌 눈물의 의미는 이제 점점 흐릿해지는 듯해서 안타깝다. 서진선 작가는 그림책 『엄마에게』를 통해 잊고 있었던 이산가족의 고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수준에서 담담히 풀어냈다.

바다가 보이는 옥탑 방 마당. 작은 아이가 서 있는 뒷모습이 보인다. 다닥다닥 붙은 판자집 사이에서 누군가를 그리는 듯한 어린아이. 아이의 옆에는 초라한 집과는 달리 화사하게 아름다리 피어 있는 화단이 있다. 집 근처 영도라는 지역명이 보인다. 이렇게 표지 그림을 찬찬히 읽고 난 독자는 이곳이 한국 전쟁 발발 이후 부산시가 피난민들에게 제공했던 정착지 중 하나, 영도임을 알 수 있다. 아이의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배경으로 짐작 가능한 그 일이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표지를 넘긴다.

평양에서 태어난 주인공 가용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5형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생전 처음 본 비행기가 신기했지만 이후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예측할 수 없었다. 여름에 시작한 전쟁은 겨울이 오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백만이 넘는 중공군이 내려온다는 소문까지 돌자, 가용의 가족은 피난길에 오른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먼저 길을 나섰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는 집을 지키기로 했다. 가던 중 아빠의 겨울옷 보따리까지 가져온 사실을 알고 둘째 가용이 그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온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빠는 남쪽으로 향했고, 금세 엄마와 나머지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후 영영 헤어져 다시는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비극이 그 시절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전쟁 때문에.



의사였던 아빠는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천막을 치고 전쟁으로 인한 환자들을 돌봤고, 어린 가용은 엄마가 즐겨 부르던 '봉선화'를 부르며 그리움을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 엄마의 소포가 도착했다. 어린 동생들이 얼어 죽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간 엄마. 엄마의 사진과 봉선화 씨앗 그리고 엄마가 불러서 녹음한 '봉선화' 녹음테이프가 소포 안에 있었다. 이제서야 독자는 알 수 있다. 부산 피난처 옥탑 방 구석에 흐드러지게 핀 그 꽃이 봉선화였음을. 그리운 엄마, 가족, 고향이었음을. 엄마가 보내준 봉선화 씨앗을 애지중지 키웠을 아이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제는 생전에도 동진군에서 돌아오려고
다시 평양을 향해 돌아옵니다.



이제는 생전에도 동진군에서 돌아오려고
다시 평양을 향해 돌아옵니다.

작가는 맨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아이의 가족사진을 넣어 전쟁이 찾아간 것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피난길에 오르기 전 집 마당의 봉선화와 부산에서 아이가 정성스레 가꾼 봉선화 화단의 대비도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 주인공 가용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의술을 펼친 장기려 박사의 둘째 아들이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현 건강보험제도의 기틀을 세운 청십자의료보험을 창설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야기의 초점을 장기려 박사가 아닌, 당시 엄마 품이 너무도 그리웠을 어린 가용에게 맞췄다. 작고 어리다고 슬픔과 고통이 덜하다 말할 수 있는가?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짐작할 수 없는 이 책을 처음 읽은 날, 한쪽 손엔 책이 다른 쪽 손엔 7살 첫째 그리고 가슴엔 막 돌이 지난 둘째가 아기띠에 안겨 있었다. 증간쯤 읽었을 무렵 붓물처럼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멀리서 있던 남편이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달려왔던 기억이 난다. 그동안 전쟁은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막연한 개념이었다. 아이의 말로 거창할 거 없이 단순하게 풀어낸 글과 그림은 실재 없는 전쟁을 눈앞에 또렷하게 그려주었다. 그제야 진정한 전쟁의 민낯을 보았다. 우리가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 통일이나, 눈이 보이는 정치적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다. 엄마처럼 고운 봉선화를 평생 마음에 새겼던 가용의 눈물을 잊지 말길.

『경영이 예술이다! II』 출판기념회

인도네시아 한인으로서 삶의 궤적을 되돌아 보며
한인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드러나는 발견의 기쁨



2024년 5월 30일, 한인회관 2층 도서관에서 『경영이 예술이다! II』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인들의 성과와 공공기관의 활약을 기록한 이 책에는 기업인들의 사회기여와 자기경영 등이 손인식작가의 시선으로 정리되었다. 주인니 대한민국 대사관 박수덕 총영사, 재인니 한인회 박재한 회장과 재인니 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경영이 예술이다! II』에 출연한 주인공과 단체장 등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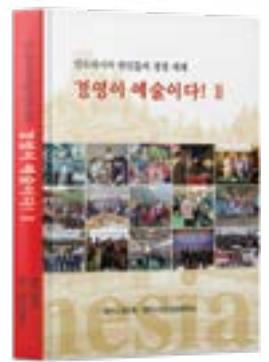
손인식 작가는 “세상은 경영이다. 이 책을 통해 기업도 사회도 개인 활동도 모두 경영이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공유하고 사회 기여와 자기경영, 그리고 기관들의 포괄적 경영 세계를 예술가적 시각으로 살

핀 기록이며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고 말했다.

박수덕 총영사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현지문화에 잘 적응하려는 의지와 능력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자취가 담겨있었다” 며 출간을 축하했다.

책속의 주인공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 혹은 단체 및 기관의 이야기를 직접 간략하게 들려주며 이해를 도왔다.

『경영이 예술이다! II』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와 KOCHAM(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이 주최·주관하고 자카르타경제신문이 후원하였다.





인도네시아 소프트 파워와 ‘비파 코리아’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인도네시아 바틱 옷을 입고, 인도네시아 노래를 부르며, 인도네시아 맛집을 찾아다니는 한국인들.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류가 증가하고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위상이 상승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 늘고 있다.

한편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 외교, 교육 등의 수단을 통해 국가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타국의 마음을 얻는 능력을 말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문화와 정체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어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도네시아어 교육 프로그램인 비파(BIPA: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주최하는 바파 코리아(BIPA KOREA)도 그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디딤 교육관은 비파의 운영 목적이 인도네시아어의 국제화 증진,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그리고 양국 간 교류 촉진이라고 설명했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진행된 제6기 비파 참여자는 932명이며, 2021년부터 총 6기를 운영한 비파는 매 회 참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의 아말리아 교육관은 ‘비파 코리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응 덕분에 인도네시아기록박물관(MURI)이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고 전했다.

‘비파 코리아’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인들이 동시에 수강한다. 또 일정이 맞으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열리는 오프라인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대회인 비파 롬바(BIPA Lomba)는 인도네시아 시 낭송, 관광지 홍보, 노래 부르기, 전래동화 구연 등 부문으로 나뉘어서 언어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인도네시아어 교육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음식, 악기, 노래, 바틱 등을 배우는 문화강좌도 운영한다.



<Bipa Korea lomba> 인도네시아 동화 구연, 인도네시아 노래,
인도네시아 시낭송, 인도네시아 여행지 소개와 대사관 관계자들의
양끝롱연주 (5월25일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공공외교와 문화 외교

인도네시아의 공공외교 전략은 예술, 문화, 요리,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올해 초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외교 모임을 개최해 인도네시아의 창조 경제, 교육, 관광, 예술, 문화 및 미디어 홍보를 포함하여 올해 인도네시아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비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도네시아 소프트 파워 순위

글로벌 컨설팅업체 브랜드파이낸스(Brand Finance)의 2023년 소프트파워 평가에서 인도네시아는 45위를 했다. 인도네시아 소프트 파워 지수는 2022년에 34.8에서 2023년에 40.9로 상승했다. 2023년 소프트파워 순위에서 미국(1위), 영국(2위), 독일(3위), 일본(4위), 프랑스(6위), 캐나다(7위), 이탈리아(9위) 등 G7 국가 전체가 톱10에 포진해 G7의 글로벌 영향력을 드러냈다.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는 전 세계 17만 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문화, 교육, 거버넌스, 국제 관계 등 55개 지표를 통해 193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평가한다.

맺는 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탄생한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세계 5위 경제대국을 꿈꾸고 이를 향해 달리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45년까지 “황금 인도네시아” (Indonesia Mas)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를 통한 소프트 파워 전략은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파 코리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어를 매개로 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끝]



다문화 한마음 큰잔치

MEMPERINGATI HARI ANAK2 DAN KELUARGA

한동훈 (JIKS, 9학년)

재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후원회(회장 최진덕)은 지난 2024년 5월 23일 땅그랑 짜뜨라 행사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1부 행사는 재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 후원회 최진덕 회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이성호 서기관, 땅그랑반튼한인회 채만용 회장, 땅그랑반튼한인회 오세명 명예회장, PT.BOSUNG INDONESIA 양유중 상무를 비롯한 여러 인사가 참여하고 한동훈 학생(JIKS 9학년)의 400 권 책 기부 및 각계의 많은 후원이 있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 한 팀으로 되어 요리 경연을 했다. 주먹밥, 김치 부침개, 떡볶이 등을 만들어 함께 나눠 먹었다.

점심 시간동안 다문화 아이들의 ‘태극기 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도화지에 색색깔의 매직으로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Sang Saka Merah Putih)를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다채롭게 표현했다.

2부 행사는 사물놀이 초청 공연으로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흥겹게 돋우었다. 학생들의 인도네시아 전통 댄스, K-pop 댄스, 태권도 공연을 했다. 태극기 그리기 시상식으로 Top 5으로 뽑힌 우승자들은 선물을 받았다. 참가자 전원은 제기차기, 실내화 멀리 던지기, 빨대로 고무줄 링 전달하기, 줄다리기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럭키 드로우를 통해 참가자 모두 상품을 받으며 이번 다문화 가정 초청 잔치를 마쳤다





제13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아름다운 모국어로 직조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0년 첫 씨앗을 뿌린 뒤 여러분들의 관심과 언어 한 줌으로 키운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전이 제13회를 맞이합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가장 유서 깊은 문학상으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소설 △수필 △시/시조로 한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주제 : 인도네시아에 관한 이야기

■ 공모 대상 : 인도네시아 거주 중고등학생 및 성인(대학생 포함)

■ 접수 기간: 2024년 06.01(토) ~ 06.30(일) 18:00 마감

■ 접수 방법: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표기 후 이메일(ikcsr@gmail.com과 indonesiastory2024@naver.com) 동시 송부
- 산문 A4 3쪽~5쪽 / 운문 2편 이상 (맑은고딕 10p, 행간 160%)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본(hwp, doc) *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_작품명
- 순수 창작물 (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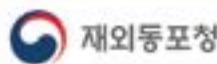
■ 시상식 및 문화 행사 : 9월 초 Gedung Kesenian Jakarta 또는 Galeri Indonesia Kaya 개최 예정

■ 시상 내역 : 상장 및 상금 (시상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구분	상명
대상	주인니대한민국대상, 주ASEAN대한민국대표부대상
최우수상	재인니한인회장상, 무궁화유통기업상, 한인문화연구원장상
우수상	한인기업 PT. FREIGHT CARGO LOGISTICS 상
특별상	인니갤러리Widayanto상, 인도네시아예술가상
장려상	Indonesia Korea Friendship Association상
장려상	한인문화연구원장상

■ 문의: 카카오톡 0812 8454 8709 / 0811 104 8140
sagongjkt@gmail.com / zemmachaejkt@gmail.com

후원



제1회 <나의 한국이야기> 공모전

- 참가 자격**
 - 인도네시아 대학생 및 성인
- 공모 주제**
 -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 (한국어로 공모)
- 제출 방법**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소속 또는 학년 표기 후 이메일 동시 송부
 - ikcskr@gmail.com과 koreastory2024@naver.com
 - 산문 A4 3쪽~5쪽 / 운문 2편 이상 (얇은고딕 10p, 행간 160%)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본(hwp, doc) • 파일명은 자명자 이름_작품명
 - 순수 창작물 (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 취소)
 - 9월 초 Gedung Kesenian Jakarta 또는 Galeri Indonesia Kaya 개최 예정
- 시상식 및 문화 행사**
- 시상 내역**
 - 상장 및 상금 (시상 내용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대상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상
최우수상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상
	한인문화연구원장상
우수상	무궁화유통 기업상
장려상	PT. FREIGHT CARGO LOGISTICS상

- 접수 기간**
 - 2024년 06.01(토) ~ 06.30(일) 18:00 마감
- 문의 사항**
 - WhatsApp +62 8121 888 203 williamsup19@gmail.com band.us/@ikcskr

주최  한인문화연구원  후원  FCL  한국자유총연맹

제3회 접수 기간 06.01 - 06.30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 참가 대상**
 - 인도네시아 거주 초등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모 주제**
 - 인도네시아의 숲과 나무, 생태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
 - 공과 화방이 담긴 인도네시아 거주 이야기 (제철수거, 통화, 통시 등)
- 참가 방법**
 - 산문 A4 3쪽~5쪽 / 운문 2편 이상 (얇은고딕 10p, 행간 160%)
 - 한글 또는 MS워드 파일본(hwp, doc), 파일명은 자명자 이름_작품명
 - 2021mothernature@gmail.com, ikcskr@gmail.com로 동시 송부
- 시상 내역**
 - 상장 및 상금

구분	상명
대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최우수상	사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우수상	한인문화연구원장상
장려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상
장려상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 시상식 및 문화 행사**
 - 9월 초 Gedung Kesenian Jakarta 또는 Galeri Indonesia Kaya 개최 예정
- 문의**
 - 081 111 7230 / 카카오톡 jaerin202
 - 2021mothernature@gmail.com

주최  한-인니산림협력센터

후원  재외동포청

애교쟁이 포미

- 이름 : 포미
- 나이 : 2019년 5월 17일생
(5살, female)
- 견종 : 포메라니안
- 성격 : 조용하고 똑똑하고 깔끔쟁이

작은집사: 김주은(JIKS, 6학년)



- 애기들 사랑!
우리집 막내딸 포미는 애교가 많고 귀여워요!
산책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해서 물에 가
는걸 즐기는듯 해요!
사람들이 이쁘다~ 귀엽다~ 인사해주면 좋아
한답니다. 드라이브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
해요!




 큰 집사: 진미옥



- 집사 가족 소개

끄망빌리지 인피니티타워에서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포미가 함께 살고 있어요. 언
 제나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며 울고 웃으
 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요!

포미에게

엄마가 인도네시아에서 살며, 가장 힘든 일
 을 겪으며 마음이 힘들 때 ~
 우리 포미를 만나고 엄마는 많은 위로를 받
 았어. 따뜻하고 부드럽고 늘 내곁에 있어줘
 서 엄마는 감사하고 넘 ~ 사랑해! 눈물 흘
 리면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천사같은 우리
 포미를 위해 엄마는 힘을 내고, 착한 포미
 를 보면서 엄마도 착해지는 것 같아! 고마
 워 ~(엄마가)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6)

제3장 한인들 (I)

들어가는 글

인도네시아에 한인(조선인)이 진출해 체류한 지는 100년 이상이 됐고,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주를 시작한 지는 50여 년이 됐다.

외교부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외동포 수는 2017년에 31,091명에서 2019년에 22,774명으로 줄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17,297명까지 줄었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양국간 투자와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23년에 25,153명(2021년 대비 45% 이상 증가)으로 늘었다. 인도네시아 재외동포가 전세계 재외동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3%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람들은 재외동포라 부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 또는 한국인이라 부른다.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재외동포와 한인도 한 예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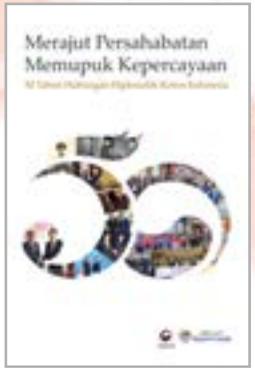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는 1970년대에 진출해 지금은 여든살을 넘긴 한인 1세대부터 그들의 자녀들, 최근 취업 등을 통해 건너오는 20~30대 청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성장 배경을 가진 한인들이 공존한다. 2024년 현재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경제활동을 위해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유학생, 코이카와 굿네이버스 등의 봉사자, 선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봉

제,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이지만 더불어 철강, 화학, 자동차, 유통, 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인 진출 초기부터 자카르타에는 한국학교, 한인슈퍼, 한식당 등이 설립됐다. 한인 중 일부가 가족을 동반해 진출함에 따라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된 것.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한인회를 필두로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직종,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인도네시아인과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소통한다. 동남아시아연구자 엄은희 박사는 인도네시아 한인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현지화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사회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은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에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는 양국인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인에게 한인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발전해왔는지를 소개한다. 1920년에 인도네시아에 온 조선인 장운원부터 최근 건너오는 한국인까지 한인의 삶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의존하며, 양국 간 외교와 경제 교류의 틀 안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말 이후 양국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경제 협력이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

I. 식민지 조선을 떠나 또 다른 식민지 인도네시아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한 조선인들

1920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를 이 책에서는 한국인의 인도네시아 진출 태동기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서 적도의 자바섬과 말라카해협 인근에서 활약했던 인삼 상인에 대한 기록은 1890년대부터 존재한다.

20세기 초에 인도네시아로 건너온 한인들은 일본과 관계가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 1호로 불리는 장윤원은 1919년 3·1 운동 직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갔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온 조선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일본은 영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며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했고, 석유와 목재, 고무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후 조선인들을 보냈다. 이들은 일본군 포로 감시원과 군위안부, 민간인 신분의 보도요원, 영화감독, 농업 전문가, 위안소 운영자 등이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 소속이든 아니든 가릴 것 없이 낯선 땅에서 굶주림과 고된 노역과 차별 대우를 견뎌야 했다.

조선인이지만 국적은 식민통치국인 일본으로 되어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이들은 조선인 이면서 일본인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인이기도 한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과 개인

의 생존을 위해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일부는 스스로 조선독립을 위한 비밀결사조직을 만들고,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이나 현지 화교들과 협력해 인도네시아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다. 일제 패망 후에는 일본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보복공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일본인과 분리하면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더 강조했다.

한편으로 일제 패망 후 네덜란드가 다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려 하자 인도네시아 민병대와 일본군 잔류자들과 협력해 네덜란드에 저항하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여했다.

1940년대에 온 조선인 가운데 대다수는 일본이 패망한 후 2~3년 사이에 조선으로 귀국했지만 소수는 남아서 인도네시아에서 큰 족적을 남긴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1960년대에 오는 현대 한국인과 조우한다.

1) 인삼 상인

인삼의 나라 조선답게 인도네시아 체류 한인의 선봉은 인삼 판매상들이었다. 1916년 조선총독부는 싱가포르에서 네덜란드령 동인도(현재의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 여권 발급을 기다리던 한국인 인삼 판매 행상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1930년에 싱가포르에서 인삼 행상을 했던 한인이 동아일보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한인이 체류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인삼 행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삶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과학, 기술,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이용하고, 보관하고, 가공하고,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가족, 명예, 체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부터 자유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소의 자유가 있으며,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양심 및 생각권, 신앙권, 노예가 되지

않는 권리,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 발전, 실행 및 충족은 국가,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아야 하며,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며,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국어,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Bahasa Negara,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 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 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Batu Prasasti

Wot Batu에서 수나르노 예술가와 함께 2016.12.08

돌을 가슴에 품고 오는 여행 거장 수나르노(Sunaryo)의 Wot Batu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우리 옛 노래에도 사랑의 맹세를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다. 묘비의 비석도 물론 돌이다. 돌은 곧 영원성이며 마음의 새김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불변을 상징하고 풍상의 세월을 무난히 견뎌내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글이나 금속, 철학적인 문양을 보고 있으면 경건하다 못해 아득함이 느껴진다. 거장 수나르노(Sunaryo Soetono) 작가와의 인연은 25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투명한 관조와 격렬한 고뇌를 하는 예술가였다. 반둥 갈 때마다 택에 들리고 걸어서 작가의 갤러리 Selasar Sunaryo Art Space(SSAS)에서 사회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의 작품을 감상하고, 갤러리에 있는 Kopi Selasar에서 반둥의 청아한 하늘 아래 한편의 시로 펼쳐지는 산과 들을 감상했다.

수나르노는 ITB(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조각 예술을 공부하고, 1975년에 이탈리아로 가서 대리석 조각을 공부했다. 자카르타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은 JL. Sudirman 입구에 있는 수디르만 장군 동상이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우리를 반기는 수카르노-하타 동상, 반둥 시내에 있는 서부 자바 투쟁 기념비(MONPERA)도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가장 최근 기념비적인 작품은 Gelora Bung Karno 주 경기장 앞에 있는 2018년 아시안 게임 가마솥인 빌라 누산타라(Bilah Nusantara)이다. 그는 회화, 설치, 판화로도 유명한 예술가이다. 1990년에 자카르타에 도착한 나는 하이얏 호텔에 있는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그곳에 자주 간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가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더해가는 작가가 될지 전혀 모를 때였다. 그의 판화 중 5점은 Joan Miro 및 Paul Klee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과 함께 The Contemporary Prints of the World(1989)에 선정되었다. Wot Batu는 약 2천 평방미터에 생명의 기원, 전지전능한 창조주와의 관계, 내세를 상징하는 수나르노의 석조물 작품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야외 갤러리이다. 전시된 영원한 석조물은 서부 자바의 반둥을 둘러싼 산, 분화구 지역에서 가져온 돌(바위)들이다. 돌들은 원형을 살리기 위해 채취했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되어 있으며, 135+1개의 커다란 화산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나르노는 “구루 사공, Wot Batu에 저의 인생 여정에서 발생하는 영적, 초자연적 에너지와 제 인생의 모든 철학을 집중 시킬 겁니다. Wot Batu를 통해서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우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입니다.” Wot Batu가 2015년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그는 가끔 진행 과정도 이야기해 주었다. <Wot Batu>는 고대 자바어로 “인생의 다리”를 말합니다. Wot Batu는 인간의 영혼과 현실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영적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땅, 불, 물, 바람과 같은 자연의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서로 소통합니다. 또한 무한한 차원의 자연은 인간을 포용한다는 인식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 Wot Batu에 대해 말할 때는 빨간색 안경테 너머의 그의 눈은 유난히 빛났다. 빨간색은 생명, 열정이라고 말하는 그는 빨간색을 포인트로 작품에 새겨 두기도 했다. Wot Batu에는 항상 큐레이터가 대기하고 있으나 몇 번은 거장 수나르노 작가가 직접 설명해 주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여러 번 질문했다. “구루 사공, 작가의 의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작품은 감상자의 몫입니다.” 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Batu Gerbang은 영적인 모험으로 가는 관문이다. 높은 돌벽 아래의 자갈 돌 위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서 바깥세상과는 다른 수나르노의 철학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석조로 된 높은 돌벽은 무지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Wot Batu에는 무슬림들을 위한 아담한 기도처 **Batu Mushalla**가 있는데, 메카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Surat Al Fatihah(코란의 첫 번째 장)가 새겨진 유리가 있다. 유리에 부착된 작은 돌은 수나르노가 성지순례 때 히라(Hira) 동굴(무함마드가 지브릴(Jibril) 천사를 통해 알라신으로부터 첫 계시를 받았던 동굴)에서 가져온 것이다.



Batu Gerbang



Batu Mushalla

Wot Batu에 있는 돌다리는 Wot Batu를 오른쪽과 왼쪽 영역으로 나눈다. 두 영역은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룬다. 우측 뇌는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담당하고, 좌측 뇌는 논리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추론하는 우리들의 뇌처럼.

Wot Batu의 우측: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영역



첫 번째 작품은 **Batu Abah Ambu**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나르노의 많은 작품들처럼 두 가지 대조 요소(음양)와 조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링가와 요니(lingga & yoni)처럼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이 작품은 생명의 근원을 말한다. 긍정과 부정, 음과 양, 비움과 충만, 육체와 내면의 자아 사이의 이원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삶 안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움푹한 곳의 물은 여성 신체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돌은 힌두교로 상징되는 인도, 발리에서 가져왔다.

Batu antara Bumi Dan Langit (땅과 하늘 사이의 돌)이라는 설치 작품은 우주의 이원론을 표현한다. 풀은 땅(수평)을 의미하고 하늘은 벽(수직)으로 상징하였다. 지구는 말하고 숨을 쉰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균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끝없는 일이 될 것이다. 수나르노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듯 하늘은 땅을 지키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양 말을 벗고 풀 위에 올라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회화가 건네지 못한 설치 미술의 감동으로 우리들은 잠시 낮을 잃는다.

‘삶의 무대’ 라는 작품에는 Batu Indung, Batu Mandala, Batu Perahu가 있다. **Batu Indung**(어머니 돌)이라는 나무줄기로 된 작품이 있다. 이 나무는 Sunaryo 집 뒷뜰에 있었던 잠부(jambu=구아바)나무의 줄기이며, 잠부는 수나르노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안타깝게도 잠부나무가 열매도 맺기 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수나르노는 어머니를 영원히 추억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청동을 입혔다. 그 옆에는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Batu Mandala**가 있다. 표면에 조각 된 만다라의 대칭선은 사람들 간,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계속해서 등글게 움직이는 우주론적 운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퍼져 있는 원형의 선들은 무대 위로 흩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인연들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우리들은 알지 못 한다. 영원히 우주를 맴돌 수도 있고 이생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국가이나 그 바탕에는 불교힌두이즘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atu Perahu**는 출생과 죽음까지의 삶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돌은 우리들은 출생부터 사람들과 교류하고, 세상을 떠난 후 그 너머의 여행, 다음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Batu Air**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다.



Batu Seke



Batu Mandala



Batu Perahu



Batu Lawang



Batu Air

이는 우리들의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나타내는 이원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돌에 새겨진 구멍과 조각은 또 다른 예술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삶과 죽음의 두 영역을 분리하는 부분에 **Batu Lawang**이 놓여져 있다. Lawang의 의미는 순다(Sunda) 또는 자바어로 문이라는 뜻이며, Wot Batu의 중심에 서서 ‘삶’에서 ‘내세’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관문’이 된다. 돌은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1세기 인간의 문명을 남길 수 있는 영원한 증거가 된다. 고대 인류가 만든 돌 조각과는 차별화하기 위해 수나르노는 Batu Lawang 위에 현대 문명의 흔적으로 그의 지문을 스캔하고 확대한 다음 돌에 새겨 넣었다. 이처럼 모든 조각, 상감, 파편은 문명의 기록이 될 것이다. 즉 Wot Batu가 Stonehenge 또는 Machu Picchu처럼 자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대 인간과 현대 장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에 비친 **Batu Air**는 연못에 걸려 있는 하늘과 함께 평화로운 죽음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가장자리가 없어서인지 주위의 자연이 평화롭고 자유로워 보인다. 이처럼 사후에 우리들은 경계가 없는 드넓은 자연으로 돌아가겠지. Batu Air는 인간은 신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의 삶, 높은 곳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의 배열은 높이를 의미하는 ‘고도’라는 단어를 만들고 있다.

순다어로 샘을 뜻하는 **Batu Seke**는 Wot Batu 안에 흐르는 물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 그 뒤에는 꼭대기에 풍속계 모양의 금속이 붙어 있는 돌기둥 **Batu Angin**이 있다. 사람과 신과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 작품은 사람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Batu Mandala와 짝을 이룬다. 이 작품 역시 수평적, 수직적 관계라는 이원론적 특성을 지닌 작품이다.

Wot Batu의 좌측: 논리 및 정보 영역

작품 **Batu Peta**는 돌을 가져온 곳에 대한 정보를 돌에 새겨 두었다. 작품 위에는 반동 주변에 있는 산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놓여 있는데, 나중에 산의 높이와 형태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산 이름, 거리, 높이, 산의 형태, 그리고 동판이 만들어진 연도가 새겨져 있다. Wot Batu는 Bukit Pakar라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Wot Batu에 있는 돌의 80%는 Bukit Pakar 주변 산에서 나온 것이다.

Batu Sepuluh는 10개의 돌이 쌓여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크리스티교의 십계명을 상징하기도 하며, 우뚝 솟은 구조는 신에 대한 인간들의 위치를 상기 시켜 주고 있다. 또한 중력과 영성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기도 하다.

또한 Wot Batu는 삶의 모든 요소, 바람, 물, 땅, 나무, 금속, 불을 포함하고 있다.

Batu Api가 있는 어두운 콘크리트 방 안에 들어서면 불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불을 느낄 수 있다.

시청각실 **Batu Ruang**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무덤 속의 시간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은 죽은 뒤에 다시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주의 대폭발부터 우주가 형성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어두운 시청각실에 들어오면 우리들은 제한된 공간에 살다 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른다. 인간이 우주, 자연의 광대함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영상 속 일부는 수나르노의 평면 작품을 스캔하고 편집한 것으로 그의 수백 작품 세계를 볼 수가 있다.

Wot Batu의 마지막 작품 **Batu Waktu**는 시간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다. Batu Ruang이 제한된 공간을 의미한다면, Batu Waktu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 돌에 박혀 있는 기계는 시간의 개념을 의미하지만 그 자체로 시간을 나타내지 못한다. 태양광 패널로 구동되는 동력 기어들로 구성되어 돌 안에 설치되어 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기계는 Batu Bale 위에 있는 태양열 발전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밤에는 작동되지 못한다. 이는 우리들은 시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위에 있는 벽에는



Batu Sepuluh



Batu A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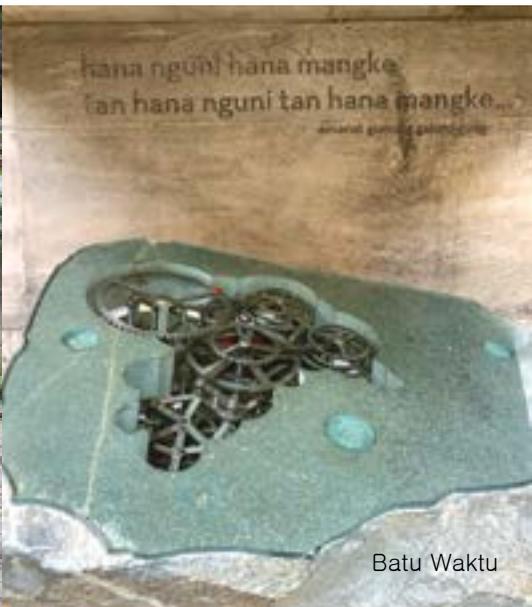


Foto: <https://amilaaulyah.com>

이렇게 새겨져 있다. “hana nguni hana mangke, tan hana nguni tan hana mangke”. “현재가 있음으로 미래가 있으며,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 라는 뜻이다.

Wot Batu에서 여행을 마치기 전에 **Batu Prasasti**를 볼 수 있다. 2015년 9월 4일에 Wot Batu 취임식에서 당시 교육문화부 장관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이 Wot Batu의 지지를 표시하며 Wot Batu가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과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수나르노는 인류를 위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태어났다. 그는 창조적으로 상상력을 확장했다. 그 상상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에게 도달한 Wot Batu 처럼 수나르노 시대의 작품을 빛내줄 것을 바란다.” 라고 적혀 있다. Wot Batu에서는 모든 작품을 만질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기대거나 잡을 수 있다.

입구에 있는 Batu Abah Ambu 옆에 Wot Batu가 한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안락의자 **Batu Merenung**가 있다. 이곳에

아 영원한 걸작(傑作) 가득한 Wot Batu를 감상하노라면 목시록을 읽는 것 같다. 이 가슴이 멎을 듯 한 풍경을 두고 인도네시아는 오랜 시간, 여러 문화를 상연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가치가 축적된 나라임을 새삼 깨닫게 한다거나 신 중심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사람과 신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치라든가 하는 것을 굳이 설명한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이 여행은 문화탐방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작품에서는 아주 먼 과거의 사람을 만날 것 같고. 어떤 작품은 나를 관조의 세계로 이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저 너머 세상의 우주와 조우하는 순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면의 영혼과 무한한 자연과 이야기를 나눈다. 돌에 새겨진 철학적인 사유를 음미하노라면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박한가를 깨닫게 된다.

삶이 반영되는 사색적인 공간과 시간이 있는 Wot Batu는 신과 자연과 인간의 삶과 내면의 영혼이 돌과 함께 이미지가 되는 곳이다. 가벼운 종이나 사원의 벽이 아닌 영원성을 상징하는 돌에 새겼으니 한층 더 묵직하게 느껴진다. 돌은 인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 한 곳에 그 흔적이 깊게 남게 된다. 이처럼 Wot Batu는 모든 조각, 상감, 조각과 함께 문명의 기록이 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21 세기의 유산이 될 것이다.

여행이란 가슴에 있던 돌을 버리기 위해 떠나는 것인데, 이 여행은 돌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는 여행이었다. 그렇지만 전혀 무겁지 않고 그 의미는 깊고도 깊다.

Wot Batu는 영원성을 간직한 돌을 매개로 하는 한 폭의 영성 가득한 그림이다. 수나르노는 말한다. “돌은 인간의 영적인 육체와 영혼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참고자료: Wot Batu (Sunaryo Soetono)
<https://wotbatu.id>

<https://mediapublica.co/2020/02/23/wot-batu-instalasi-batu-penghubung-spiritual-jiwa-dan-raga>
<https://amilaaulyah.com/2020/11/01/wot-batu-makna-kehidupan-dalam-bebatuan/>

-Selasar Sunaryo Art Space(SSAS)
JL. Bukit Pakar Timur No.100 Ciburial, Bandung
-Wot Batu
Jl. Bukit Pakar Timur No. 98, Ciburial, Bandung



2024 이달의 시사상식

1. 멀티레이블

멀티레이블란 ‘다채로운’을 뜻하는 multi와 ‘음반사’를 뜻하는 ‘label’이 합쳐진 용어로, 쉽게 여러 음반사가 합쳐진 형태의 경영 형태를 말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빅히트뮤직(방탄소년단·투모로우바이투게더), 플레디스(세븐틴·프로미스나인·투어스), 쏘스뮤직(르세라핌), 어도어(뉴진스), 빌리프랩(엔하이픈·아일릿), KOZ(지코·보이넥스트도어) 등 여러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공장, 기관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각 가정에서도 오염원 배출을 가급적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만큼 공과금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3. PA 간호사

‘PA 간호사’는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현재는 일반 간호사들이 관행으로 혈액 검사나 상처 소독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맡아서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상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다.

4. KTX-청룡

KTX-청룡은 국토부가 차세대 고속철도 연구개발(2007~2015)을 통해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기존 KTX에 적용된 동력집중식보다 우수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순수 기술로 설계·제작된 KTX-청룡은 최고 속도 시속 352km, 영업속도 시속 320km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5. 대상포진

대상포진이란 과거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경을 타고 나와 다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수포와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신경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6. 다크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다르게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말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하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역사교훈여행’으로 우리말 순화를 하였다.

7. 밀프렙족

‘밀프렙족’은 ‘밀프렙(Meal prep)’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식사를 뜻하는 ‘밀(Meal)’과 준비를 뜻하는 ‘프리퍼레이션(Preparation)’의 합성어로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 도시락을 직접 싸서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편의점 도시락보다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 비용도 아끼고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어 먹겠다는 ‘밀프랩족’ 이 늘고 있다.

8. 사그라다파밀리아

사그라다파밀리아는 유명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주도한 설계에 따라 1882년 착공한 성당 건축물로, 그 위용이 엄청나다. 규모도 규모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건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으로, 가우디는 1926년 사망했는데 당시 사그라다파밀리아는 불과 10~15% 정도만 완성된 상태였다. 특수성과 건축물의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이후 스페인의 유명 관광 명소 중 한 곳으로 이름을 떨치며 연간 500만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9. CAR-T

CAR-T는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의 약자로,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발현시키는 면역 T 세포를 의미한다. CAR-T 치료제는 CAR-T세포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공격하게 만든 것으로, 백혈병이나 B세포림프종 같은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형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화재사고,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사고와 대형 운송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로 제정되었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었다.

11.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이란 유류세가 상승함에 따라 민생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유 가격이 정해놓은 기준금액(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12. 재난취약자

재난취약자는 몸이 불편해 즉각적인 대피가 어렵거나 재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난에 더욱 취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이 재난취약자인데, 범위에 따라 재난취약자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의미에서 재난취약자는 자연재해 등이 벌어져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

13. 레딧

레딧은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레딧은 지난해 10월 일일 순 방문자 7천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사용한다. 레딧의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벳츠’(WallStreetBets)는 ‘밈 주식’ 거래로 유명한데, 밈 주식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을 가리킨다.

1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고도 불리는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를 말한다. ‘급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GTX는 일반 전철에 비해 빠르다. 이유는 지하 40m 이하에 터널을 건설하여 노선을 직선화했기 때문으로, 표정속도(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속도) 시속 100km, 최고 시속 200km로 운행하게 된다. 수치상으로는만 보면 기존의 전철보다 약 3배 이상 빠르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	-----------------------------------	-----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	------------------------	------------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SMS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외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리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뉴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샤르헤어	7279 6998
센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뽕렐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쫄뽕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뽕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호(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창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정육식당)	0877 7529 8482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쉘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수문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 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 (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웅)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뜨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갈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물리아 574 7777
- 상그릴라 570 7440
- 싸이드자야 570 4444
- 하야트 390 1234
- 크라운플라자 526 8833
- 술탄 573 8011
-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 굿-머니 5793 9990
-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 끌라빠가징 453 1166

-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 뚜나스신암 797 6105
-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 환전 712 8556

반등 (지역번호 022)

● **식당**

- 뉴캐슬식당 201 5007~8
- 명가레스토랑 200 7363
- 코리아하우스 203 1626
- 한국관 204 3069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C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HP: +62-816-873-176, +62-816-1390-333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E-mail: 3spearl@hanmail.net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10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슬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BS

DONGHAE

SIMS

Yeong Yang Wind Power

MINTEC

SRT

SRT

ABM

KIDECO